

2021 '용마의 밤' 끝내 취소...코로나19 위세에 내년 기약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드디어 부활

지난 11월 19일 출범식... '월 1구좌 1만원' 자동계좌이체 기부
회장 유재진(22회)·수석부회장 박종찬(25회)·실무위원장 조용철(38회) 동문

'경남중고 야구후원회'가 드디어 부활의 고고성(呱呱聲)을 올렸다. 지난 11월 19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2010년 이후(2010년 3월 제47차 정기총회에서 야구후원회 운영비 승인 기록 존재) 소리소문 없이 활동이 단절된 야구후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최근 제1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를 주관하며 성공리에 개최했던 경야회(경남고 야구선수 출신 모임)가 또 하나의 프로젝트로 야구후원회 부활을 추진한 것이다.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은 "모교 야구사랑과 야구발전을 위해 다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곧 제시하겠다"고 밝혀왔다. 그 방향이 야구후원회로 귀착되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야구후원회는 '월 1구좌 1만원' 자동계좌이체 형식의 기부금 모금을 추진한다. 물론 개인별 구좌수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리고 개인 누구에게든 고액기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최초의 야구후원회는 1982년 9월에 탄생했다. 허완구(9회) 동문이 회장을 맡았다. 이듬해 10월 야구후원회는 모교 야구부 성적부진을 책임지고 임원진이 사퇴함으로써 사문화되었다. 세월이 흘러 1994년 12월 야구후원회가 재차 부활했다. 박재상(22회) 동문이 회장에 선임됐다. 이후 10여년 곡절을 겪으면서 박재상 동문이 끌고 왔지만 힘이 부쳤다.

과거 야구후원회는 특정한 몇몇의 고액 기부(고액소수)로 진행되다 보니 모금 피로도 누적과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영속성이 떨어지고 결집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해 이번 야구후원회는 모금형식을 '소액다수' 형태로 바꾸고, 사무처리를 맡을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초대회장으로 유재진(22회·벤츠-스타자동차 회장) 동문이 선임됐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이 수석부회장,

조 경야회 회장이 실무위원장을 맡는다. 부회장단과 이사 인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김동주(51회) 경야회 사무국장이 야구후원회 사무총장을 겸임할 계획이다. 감사는 2명(1명은 경야회 회원)을 둔다. 임원 임기는 3년, 1회 연임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출범식이 지난 11월 19일 총동창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유재진(22회) 회장

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무위원회는 경야회 집행부가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서 박 야구후원회 수석부회장은 "야구후원회는 역사적으로 3번째이다.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대로 된 야구후원회를 구성하겠다. 지난 야구후원회 이후 기별분담금으로 지원을 충당했지만, 너무 미미한 지원이었다. 타교 동문회와 비교하면 모교 야구부 지원이 너무 적다. 경야회만의 후원회로는 확장성이 없다. 동문 참여의 길을 모색한 결과 '소액다수'의 후원회를 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안정을 기할 것으로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야구후원회 계좌번호

부산은행 101-2077-9886-02
예금주: 유재진

<기사 2면에 넘김>

용마장학회, '갈등 해소' 과제 안고 새 출발

이사진 개편...총동창회 추천 인사 반영 미흡

용마장학회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해운대 더베이101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임기 4년의 이사진을 구성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 7명과 감사 2명이 참석했다. <용마장학회 이사진 개편 해설 2면>

이날 기존 이사진에서 장혁표(8회) 이용흠(19회) 이병찬(23회) 옥동훈(25회) 박성철(29회) 손영태(31회) 박명진(33회) 임태영(40회) 이사가 연임됐으며, 안강태(11회) 오거돈(21회) 최우철(30회) 이사가 퇴임했다. 이 자리서 이춘만(19회) 박종찬(25회·총동창회 고문) 김현태(30회·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동문이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이어 용마장학회는 지난 11월 17일 오후 해운대 더베이101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병찬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옥동훈 이사를 상임이사로 위촉했다. 이사 8명, 감사 2명이 참석했다. 이날 용마장학회는 2022년도부터 장학회 내 운영위원회를 신설, 이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세부 운영지침은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총동창회는 회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용마장학회 새 이사진 및 감사 후보(명단 3면 이사진 추천 동의안 기사에 게재)를 추천해 전달했다. 하지만 용마장학회는 총동창회 추천 이사 후보 11명 중 기존 이사 2명(이병찬 옥동훈)을 연임시키고, 박종찬 김현태 두 동문을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결과적으로 총동창회의 '이사 추천'이 크게 의

미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로써 총동창회와 장학회 간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이병찬 이사장 체제의 용마장학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 관련, 박종찬 고문은 지난 11월 2일 총동창회 밴드를 통해 이번 용마장학회의 이사진 개편 내용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총동창회는 박 고문의 지적이 있었던 터라 즉각적인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지난 11월 9일 오후에 열린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용마장학회 이사진 개편은 총동창회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면면을 보면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서 "장학회 측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절충안으로 제안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제1회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 성료

장학회 운영위원회 구성이 ‘갈등’ 치유책인가?

“이사진 인선, 화해 위한 조치”에 반신반의 주시
이사·운영위원, 명예에 걸맞은 책임 갖게 해야

■총동창회장·장학회 불협화음 전말

이번 용마장학회(이하 장학회) 이사진 개편과 관련, 장학회는 정관에 따라 선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총동창회는 회칙에 따라 이사 후보를 추천했는데, 별로 반영이 안 됐으며 장학회가 총동창회를 무시했다는 반응이다. 더불어 이사진 개편 내용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박종찬(25회) 총동창회 고문은 이번 장학회 이사진 개편과 관련, 총동창회 밴드를 통해 쓴소리를 날렸다. 요약하면, △‘젊은 피’ 수혈이 안 돼 정체 △기금 조성 무기여자 선임 △동창회 결속 해친 박성철(29회) 동문 연임 △출석률 저조 이사 연임 △‘연임 제한’ 위한 정관 개정 촉구 등이다.

장학회는 박 고문의 반발에 대응했다. 장학회 내 운영위원회 구성이란 ‘카드’를 제시했다. 장학회 이사직 사퇴를 표명했던 박 고문은 잔류하며 개혁해 나가기로 마음을 돌렸다.

총동창회도 집행위·부회장단 회의에

서 장학회 운영위원회 구성 내용이 나오면 대응 방향을 정하자고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체제를 부정하는 박성철 동문의 장학회 이사 연임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재 박성철 동문의 입장을 지지하는 일부 29회 동기생과 몇몇 동문들은 ‘임시 총동창회 사무실’을 연산동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무실 전세 보증금을 비롯한 운영 경비의 출처도 의문이다. 올해 연초에 벌어진 ‘총동창회장 불신임 소동’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의미이다. 이런 터에 박성철 동문의 장학회 이사 연임은 갈등을 표면화 시킨 모양새가 되었다.

이병찬 장학회 신임 이사장은 “박성철 이사 연임은 동문사회에 내재돼 있던 불화와 반목을 화해와 단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박성철 동문이 화해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장학회 운영위원회 구성 또한 간단찮은 일이다. 운영위원회의 역할 구분, 이사회와의 관계 설정, 운영위원 선임 등 따져볼 사항이 많다. 운영위원회 안은 동아고 동문회에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한다. 동아고 장학회는 이사 5명, 운영위원 1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이 낸 회비로 장학회 서무직원 월급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용마장학회가 동창회관을 운영함으로써 동창회관장과 간사, 서무직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당연히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수 지급이 있어야 한다. 장학회 재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이사진 등 장학회 관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기댈 수밖에 없다. 장학회 이사진의 실질적인 기여를 말하는 것이다. 운영위원도 마찬가지이다. ‘장학회 이사’ ‘장학회 운영위원’이라는 명예에 걸맞은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동문 기부금을 운영하는 장학회 이사진의 연임 제한 조항도 분명히 뒤야 한다. 임기 4년은 충분한 기간이다. 총동창회에 매년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되듯 이사진도 물 흐르듯 세대교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교 지원 비율 경남고 85%, 경남중 15% 계획

〈기사 1면에서 읽음〉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야구후원회가 총동창회와는 별도의 조직이지만,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조 실무위원장은 “그동안 모교 야구부 지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 ‘야구명문대(大)경남중고’라고 말로만 해왔다. 전국 100개 고교 중 모교야구지원금이 90~100위 정도로 추정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최단기에 최대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동문들의 부담없는 후원으로 경남중고 야구가 정상에 우뚝 설 수 있게끔 톱톱 뭉치자”고 말했다.

야구후원회는 12월 중에 집행부 인선

과 회칙을 확정짓고, 내년 1월 정기총회를 가질 계획이다.

회원별 기본 구좌수로 후원회장 100구좌, 수석부회장 50구좌, 부회장 30구좌, 이사 20구좌, 특별회원 10구좌, 일반회원 1구좌 이상 등으로 내정했다. 연간 계좌이체 기부금을 1억5천만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야구후원회는 구좌 개설에 재경동문들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모교 지원 비율은 경남고 85%, 경남중 15%로 할 계획이다.

야구후원회 실무위원회의 업무는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 주관, 우수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감독·코치 연봉 일부 부담, 선수 스카우트 지원, 전국대회 출전비 지원, 야구용품 구입비

지원, 감독 선임 의견 개진, 수익성 이벤트 주관 등이다.

야구후원회가 성공적인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충족요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입회원 수가 많아야 한다. 홍보를 통해 동

문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얻어야 한다. 둘째, 재원 집행의 투명성이다. 혹여 잡음이 발생한다면 동문사회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 셋째, 총동창회와의 관계 설정을 잘 해야 한다. 총동창회와는 무관한 독립적 임의단체인 야구후원회에 모금활동의 자격과 권한이 존재하는지도 따져 봐야 할 사항이다. 총동창회는 기존의 지원방식과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해 재설정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야구후원회 실무 영역의 명확성이다. 실무위원회의 업무가 순수 후원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바, 자칫 학교나 총동창회와의 마찰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야구후원회는 정기총회 이전까지 이 같은 지적들을 반영하여 회칙 및 업무지침을 잘 만들어야 한다.

◇야구후원회 출범식 참석자(기수순)=박종찬(25회) 박종기(28회) 김대욱 김종명(이상 29회) 이수환(37회) 신동훈 조용철(이상 38회) 윤원욱(39회) 김인수 최영준(이상 41회) 전광렬(44회) 구자삼 손창오(이상 45회) 정신(47회) 김동현(50회) 김동주(51회) 김상욱(53회) 조중완(54회) 장지훈(55회)+3명 미확인.

모교사랑기금 기부자 참여현황

2021년 1월 1일 현재 (단위:만원)

개인			
5회	5	김대욱	250
6회	1	오영환	100
7회	1	김상현	500
12회	2	조한기	30
13회	1	김성훈	10
15회	1	손부호	100
17회	1	이수창	100
18회	1	하영일	20
23회	1	김성태	100
24회	3	과두호	100
		임민우	50
		전우호	5,000
		과두호	50
		김대욱	30
		김대욱	100
25회	7	박종찬	10,000
		오영환	30
		오영환	20
		정수진	100
		김성훈	50
28회	7	노영환	100
		박종찬	100
		백영환	100
		염재철	100
		이원재	50
		임재덕	50
		김대욱	30,000
29회	7	(약정액4억4천만원)	
		김영찬	100
		김영환	100
		이문영	200
		이선영	100
		차수영	100
		현영환	100
31회	1	김영환	31
32회	1	이영환	1,000
		김기산	10
33회	4	김영환	50
		김백수	50
		최영환	500
34회	2	이영환	500
36회	1	박영환	550
37회	1	정영환	30
38회	2	이수환	30
		김태현	30
		박이현	100
39회	4	박종찬	10
		백기현	50
		윤원욱	100
		정수환	100
40회	1	한수영	100
41회	2	김정태	410
42회	1	최영환	410
43회	2	정영환	30
		김민석	10
44회	1	김진수	10
45회	2	전광렬	50
		권우영	30
46회	1	박우영	20
		정수환	20
47회	2	정수환	300
48회	1	하종건	10
50회	1	김춘호	30
52회	1	정재우	100
53회	1	김현진	10
		김권우	30
54회	3	김영빈	10
		정준선	30
		조중완	100
55회	1	이우환	10
56회	1	류은재	20
58회	1	오영환	10
		익명	20
참여인원(명)	77	개인 합계	52,854
동기회			
7회 동기회			300
45회 동기회			450
51회 동기회			100
52회 동기회			52
53회 동기회			55
54회 동기회			100
55회 동기회			55
동기회 합계			1,112
단체			
강서지구동창회			100
경미회			160
경미회 대외협력분과			30
경미회 문화체육분과			30
경미회 미래발전분과			30
경미회 사회공헌분과			30
경미회 친목교류분과			30
경야회			50
김해지역동창회			50
남부산지구동창회			100
덕형리그			300
동래금정지구동창회			100
미술작가 작품 판매 수익 기부금 (30박홍식/38박규열/41김현/41여근섭)			230
삼사공사 (13배대결/13윤기갑/14김화옥/24김인구)			20
용건회			50
주경야독학원일동			50
창원지역동창회			100
해운대지구동창회			100
단체 합계			1,560
전체 합계			55,526



경야회 집행부가 유재진(22회·오른쪽에서 두 번째) 동문을 만나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초대회장직 수락을 요청했다.

“모교 80주년 기념행사 세밀한 준비 필요”

80년사 봉정식, 기념품 및 각종 포상 계획 세워야

**미래좌표 제시할 주제어 절실
‘용마의 밤’ 취소는 불가항력적**

■ 집행위부회장단 회의 개최

총동창회는 지난 11월 9일 오후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집행위부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 정식 모임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용마장학회 이사회의 새 이사진 선임 경과 보고와 2021년 ‘용마의 밤’ 행사 개최 여부가 중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과 과두희(24회) 자문위원장을 비롯, 집행위부회장 7명이 참석했다. 박종기(28회) 자문위원 겸 모교80년사 편집위원이 게스트로 참석했다.

이날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가을이 깊어 간다. 취임 9개월째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위세 하에서 여러 가지 현황 파악에 주력했다. 정중동(靜中動)의 시간이었다. 이제 위드코로나가 되니 적극적으로 모임을 많이 가지겠다. 언제나 좋은 의견을 주고 자주 만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소개한다.

▲용마장학회 긴급 이사회 개최 경과 보고=용마장학회의 새 이사진(명단 1면 용마장학회 기사 참조) 선임 내용이 소개됐다. 이에 앞서 총동창회는 회칙에 따라 용마장학회 이사 11명(명단 아래 박스 기사 게재)을 추천, 용마장학회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와 관련, “녹록치 않은 사태”라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총동창회 입장을 장학회에 전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쉽게 타협점을 찾기 힘들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장학회 운영위원회 구성이 구체화되는 것을 보고 대응하기로 정했다.

▲2021년 용마의 밤 행사 관련 논의=2021년 용마의 밤 행사는 취소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원래 12월 9일 오후 서면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코로나19 방역기준 변화를 고려해 12월 16일로 예비예약까지 해두었다. 하지만 호텔측에서 코로나19 방역기준을 들어 행사 개최 불가를 통보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장소 확보가 불가항력적이라 올해 행사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행사 준비 방안=총동창회 사무국에서는 잠정적인 방안을 이날 제시했다. 우선 경남중고와 기념식 등 세부 행사일정을 조율(2022년 4월 30일은 토요일이라 일정 조정 고려)하기로 하고, △외부 초대인

사 명단 작성 및 초대 방식 △기념식수 등 상징물 조성 △기념품 및 재학생 선물 △모교80년사 경남중고 봉정식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 자리서 박 모교80년사 편집위원이 50년 전 개교 30주년부터 70주년까지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당시의 기념행사에 대한 조사 내용 설명과 80주년 기념행사의 방향 설정을 제안했다.

박 편집위원은 역대 10주년 단위 개교 기념행사를 참고하여 몇 가지 안을 제시했다. 사무국 준비 내용과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4년(이상) 근속교사 기념품 △장기근속 관리인 포상 △부모·형제 동문 또는 최다동문가족 기념품 전달 △1~10회 원로 동문 모교 및 동창회관 초청 △동창회관 일반 공개 등이다.

박 편집위원은 덧붙여서 “이번 모교 개교 80주년 기념일은 20년 후 맞게 될 개교 100주년을 향해 가는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사상초유로 모교사가 편찬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80주년을 기념하면서 경남중고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상

징적 ‘주제어’, 즉 테마가 필요하다. 이를 중지를 모아 잘 채택해 모든 동문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모교사랑기금 모금현황 보고=이날까지 전체 모금액은 5억5,416만원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김 총동창회장의 나머지 약정금과 몇 고액 기부자의 기부금을 포함하면 8억~9억원으로 추정 집계됐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내년말까지 모금 진행 상황을 봐서 기부금 용도를 정하겠다. 현재 추이로 봐서는 역사관과 이태석기념공원 조성이 힘들겠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기타 보고 사항=△수시기부시스템에 따른 등급부여자 업그레이드 동문에 대한 감사패 수여-12월 중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행사 시행. 각종 기부 증서는 연내로 보낼 예정이다. △제23회 용마골프대회 결산 보고 △제52회 기별야구대회 취소 보고-코로나19로 스케줄 진행 불가 △제1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 폐막-총동창회 산하 동호단체인 경야회에 대회 예결산 편성권 이관 보고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 현황 보고-이날 현재 구독료 납부자 2,401명 확인. 코로나19로 각 기수 동기회 못 열어 구독료 납부 저조. 각 기수 동기회장에게 독려 요청 필요.

한편 이 자리서 김법영(33회) 부회장은 11월 20일 경불회 정기법회와 12월 12일 용마산악회 올해 납회 금정산 산행 계획(이후 취소)을 밝혔다.

박근태(39회) 부회장(경남고 운영위원장)은 최근 가진 모교 운영위원회 소식을 전했다. 백영선 경남고 교장이 의욕적으로 10인의 유능한 초빙교사를 모시려했으나 지원자는 3~4명뿐이었다고 전했다. 경남고의 접근성과 교통 불편이 장애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박 부회장은 “교사들이 모교에 근무하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메리트’(차별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총동창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웅열(29회) 사무총장은 재정동창회에서 경남고 학년부장 등에 해오던 지원이 끊겼다고 모교에서 전해왔다고 밝히고, 지원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용마코러스 사무국장)은 12월 7일 개최하는 용마코러스 제5회 정기연주회에 많은 동문들이 관람해주길 요청했다.

◇집행위부회장단 회의 참석자(직책 생략·기수순)=과두희(24회) 박종기(28회) 김대욱 현웅열(이상 29회) 김현태(30회) 류명석(31회) 김법영(33회) 박진용(36회) 정재형(38회) 박근태 윤원욱(이상 39회) 신봉준(42회).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단 회의가 지난 11월 9일 총동창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 용마장학회 이사진 11명 추천

회칙 개정안 투표 통과

총동창회는 지난 10월 25일 낮 동안 이사회 임원 148명을 대상으로 용마장학회 신임 이사진 및 감사에 대한 추천동의안 비대면 모바일 비밀투표를 실시하였다. 추천 이사진은 11명이며, 감사는 2명이다. 용마장학회 현 이사진 11명(이사장 포함)과 감사 2인의 임기는 11월 중순 종료된다. 총동창회는 회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새 이사진 및 감사를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진 추천 비대면 투표에서 총

동창회 이사회 임원 46명이 참가(참가율 31.08%), 찬성 39명(득표율 84.78%) 반대 7명(득표율 15.22%)을 기록했다. 감사 추천 비대면 투표에서는 45명이 참가(참가율 30.41%), 찬성 43명(득표율 95.56%) 반대 2명(득표율 4.44%)의 결과를 보였다.

이날 비대면 투표에서 용마장학회 이사진에는 과두희(24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장, 이명찬(23회) 용마장학회 이사, 박종찬 총동창회 고문, 옥동훈(이상 25회) 용마장학회 이사, 박종기(28회) 동기회장·총동창회 자문위원, 김대욱(29

회) 총동창회장, 김현태(30회)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박진용(36회) 허부남(37회) 권두성(38회) 우영환(40회) 총동창회 집행위부회장 등이 추천됐다. 감사는 이재호(21회), 서민석(30회) 현 용마장학회 감사 2명이다.

한편 총동창회는 지난 10월 12일 낮 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비대면 임시 이사회를 개최, 총동창회 회칙 개정안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날 모바일 투표에서 이사진 148명 중 53명이 참가(참가율 35.81%), 100% 찬성표를 던져 개정 회칙이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총동창회 회칙 전문을 12~13면에 게재한다.

제1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

경남중고 명예 드높인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

“대회 개최 목적 달성”...야구계서 주목, 학부모들 큰 찬사
북구리틀야구단,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대회 첫 우승



지난 10월 28일 열린 제1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 개막식 모습.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제1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가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경남중고 총동창회 주최,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경야회 주관으로 지난 10월 28~31일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 리틀야구장과 소프트볼구장에서 개최됐다. ‘경남중고’라는 이름을 걸고, 경남중고 출신 동문들의 참여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야구계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대회 폐막 이후 지역 내는 물론이고 타 지역에서도 각기 모교의 이름을 걸고 이 같은 대회를 가지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후문이 나올 정도이다. 유사 대회 창설을 타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번 대회 창설의 의미와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한 16개팀 학부모들의 현장 호응과 찬사가 대단해 경남중고 동문회의 존재감과 ‘파워’를 실감케 했다.

이번 대회 우승은 북구리틀야구단(감독 진병구·부산고 55회)이 차지했다. 지난 10월 31일 결승전에서 북구리틀야구단은 동래리틀야구단(감독 김정민·

경남고 42회)과 맞붙어 6회말까지 9:9의 접전 끝에 연장전 7회말 득점으로 대회 창설 첫 해의 우승팀이 되었다.

이날 대회 폐회식 시상은 우승과 준우승 2개팀에 한정됐다. 총동창회관 개관식 등 각종 굵직한 동문 행사에서 명사회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박종기(28회) 총동창회 자문위원이 폐회사와 함께 우승기와 준우승기, 트로피 수여를 맡아 매끄러운 폐회식이 되었다. 우승팀에게는 야구공 10타(77만원 상당)와 야구 배트 1자루(15만원 상당)가, 준우승팀에게는 야구공 10타가 각각 부상으로 전달됐다.

이 대회 주관을 맡아 전력을 다한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은 “이번 대회

의 개최 목적을 완벽하게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모교의 명예 회복과 위상 제고, 야구부 발전 그리고 어린 꿈나무들의 모교 동경과 이들에 대한 용이한 스카우트 등 놀라운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많은 동문들의 협조와 관심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성공 요인은 주관처인 경야회의 헌신적 노력과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주최측 총동창회의 뒷받침과 동문들의 파격적인 협찬 등이 어우러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인 정신(47회) 동문이 개인적으로 효창수산배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를 3회째 성공적으로 치러본 경험과

노하우가 이번 대회에 고스란히 전수되어 대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편 10월 28일 치러진 이 대회 개막식은 오랜만에 보는 축제의 자리였다. 야구장 입구에 차량 대형스크린에는 모교 출신의 현역 프로야구선수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계속 흘러나와 대회 참가 선수와 학부모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이날 사회는 김정진(44회) 동문이 맡았다.

개회식에서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은 “이번 대회가 경남중고의 ‘야구명문’ 명성을 되찾고, 야구발전에 기여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 교육의 근본은 지덕체의 합일에 있다. 지와 덕은 체에서 나온다고도 한다. 청소년기에 스포츠 활동은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리틀야구대회의 의미가 중요하다. 대회를 내실 있게 잘 치러서 이후 규모가 더 커지고 권위가 생겨서 전국적인 대회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경야회 회장은 축사에서 “참가팀 감독, 선수, 학부모, 대회 관계자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이번 대회는 한국 프로야구의 결출한 스타들을 많이 배출한 야구명문 경남중고 총동창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이다. 리틀야구 꿈나무들의 꿈과 용기, 희망과 미래를 꿈꾸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이 대회가 100회 이상 장수하는 대회로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산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효창수산배 리틀야구대회에 이어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리틀야구대회까지 개최되어 자라나는 야구꿈나무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확장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내년에는 관중석이 학부모와 야구 가족들의 함성으로 가득차길 기원한다”면서 “야구협회장으로서 임기 내 아마전용 야구장을 건립, 구덕야구장 철거로 인한 전용구장 부재 문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서지구동창회는 회장(김종규·31회)과 사무국장(이수관·38회)이 후원팀 강서리틀야구단을 응원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다. 이정우(51회) 감독, 오진진(51회) 코치가 이끄는 강서리틀야구단은 이날 수영리틀야구단에 콜드게임승을 거둬 응원덕(?)을 토틈 본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찬조도 있었다. 김택영(26회) 고문 10만원, 백영호(28회) 고문 건강음료1박스, 김종규 회장·이수관 사무국장·김성준(44회) 사무차장 각 10만원.

<기사 5면에 넘김>



제1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한 부산 북구리틀야구단.



제1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 개막식에 참가한 동문들.



제1회 경남중고 총동창회장배 부산경남 리틀야구대회 개막식에서 시구하는 김대욱 총동창회장.

KNN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 우승

“용마, 그린재킷 입다” 동문 골프사 신기원

김치언(37회) 정의석 배봉건(이상 44회) ‘용마트리오’

‘후라 경고’ 외치며 대활약 쾌거
장학금 1,200만원 경남고 전달

경남중고 동문 골프사(史)에 큰 획을 긋는 대사가건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2년 만에 지난 10월 14일 양산 통도파인리스트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NN 주관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최강전에서 경남고 동문 대표팀이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김치언(37회) 정의석 배봉건(이상 44회) 동문이 거둔 값진 승리였다.

모교 대표팀은 전국의 60개 고교가 참가한 예선전(2명 출전-김치언·정의석)에서 1위를 차지, 문경공고·마산공고와 본선에서 맞붙었다. 본선(3명 출전·9홀 플레이 진행-첫 6개 홀 포섬 매치, 나머지 3개 홀 개인 매치)에서 모교 대표팀은 총 6점을 획득, 문경공고(2위·4점)와 마산공고(3위·2점)를 따돌렸다.

모교팀은 우승 소감에서 “처음 우승이라 감개무량하다. 동문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됐다. 동문 골프회를 조직하여 활발한 모임을 가진 게 우승의 원동력이 되었다. 모교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본선 경기 내용과 관련, 모교팀은 “6번홀에서 공동선두를 허용해 분위기가 넘어갈 뻔 했는데 8번홀에서 단독 승리를 거두며 ‘적어도 연장전까지는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져 우승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다”며 “마지막 홀에서 티 샷 미스를 했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3온 전략을 펼치자고 뜻을 모아 우승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시작 시 ‘후라 경고’를 외치면서 기를 모았다는 모교팀은 시상식에서 “후배들아, 우리 장학금 가져 간다”고 함께 외쳤다.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최강전에서 우승한 그린재킷의 용마트리오-김치언(오른쪽에서 두 번째) 정의석(왼쪽에서 첫 번째) 배봉건(오른쪽에서 첫 번째) 동문-와 김대욱 총동창회장(가운데) 김경곤 용마골프회 사무국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모교 대표팀은 모교장학금 1,200만원과 트로피, 55인치 UHD TV(학교 방문 설치), 금장 퍼터 1개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 본선은 SPOTV골프&헬스 방송에서 지난 11월 3일 오후 10~11시에, KNN 특집방송으로 지난 11월 7일 낮 12시 10분~1시 10분에 방영되었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을 자축하는 행사가 당일 오후 자갈치 부산명물횃집에서 열렸다. 우승 주역 대표팀 선수 3인을 비롯,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 박종찬(25회) 고문, 현응열(29회) 사무총장, 이종휘(32회) 용마골프회 회장, 김경곤(38회) 사무국장, 강훈(41회)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예선전 1위 확정 시 우승 여부를 떠나 대표팀 선수, 용마골프회 관계자 등에 대해 한턱내겠다던 김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역사적인 날이다. 대업을 이뤄낸 것을 축하한다”며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자. 내년 대회에 나도 기여(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용마골프회 회장은 “취임 때 이 같은 대회 우승에 도전해보자는 꿈을 피력했는데 이루어졌다.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용마골프회원들의 협조와 지



지난 10월 26일 경남고 교장실에서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최강전 우승 상금 모교장학금 1,200만원 전달식이 열렸다.

지가 큰 힘이 됐다. 용마골프회 집행부, 이성훈(32회) 선수 선발위원장에 감사 드린다. 선수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 우승하기까지 김진권 현 통도CC 챔피언의 도움이 컸다. 감사패라도 마련하겠다”면서 “선수 사

인 기념볼을 이번 용마골프대회 참가자에게 전하자” 제의하기도 했다.

모교장학금 1,200만원 전달식은 지난 10월 26일 오전 김 총동창회장 등 사무국팀이 경남고를 방문하여 가졌다. 우승 트로피와 금장 퍼터는 사무국에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최강전 우승 트로피.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최강전 우승기와 부상 금장 퍼터.

보관되어 있다. 선수들에게는 우승트로피와 금장 퍼터 모형을 제작, 기념선물로 전하기로 했다.

<기사4면에서 받음>

◇개막식 참가 동문(직책 생략·기수순)=박종기(28회) 김대욱 김종명 이문열 현응열(이상 29회) 김종규(31회) 이종휘(32회) 이수환(37회) 김경곤 박정민 신동훈 조용철(이상 38회) 윤원욱(39회) 정용준(42회) 김경진(44회) 정신(47회) 김동주(51회).

◇대회 현금 후원 내역(총액: 3,523만원·기수순)=▲개인-박종찬(25회) 200만원, 박종기 30만원, 백영호(이상 28회) 30만원, 김대욱(29회) 500만원, 이

충원 30만원, 이문열(이상 29회) 100만원, 이종휘(32회) 50만원, 김종휘 100만원, 이수환 30만원, 허부남(이상 37회) 100만원, 조용철(38회) 100만원, 정순환(39회) 50만원, 우영환 100만원, 한수열(이상 40회) 20만원, 김인수 50만원, 최영준(이상 41회) 50만원, 정용중(42회) 50만원, 배봉건 30만원, 안병규 100만원, 전광렬 50만원, 탁정환(이상 44회) 100만원, 권우일 30만원, 조태성(이상 45회) 50만원, 임경완(48회) 20만원, 김홍수(49회) 50만원, 강봉규(50회) 20

만원, 김동주 100만원, 최우영(이상 51회) 30만원, 김민수 10만원, 김민철 50만원, 김지운 30만원, 김현진 10만원, 서정수 150만원, 최문성 30만원, 한중현 10만원, 허근영(이상 52회) 10만원, 김권우 30만원, 김상욱 70만원, 송승준 150만원, 이상훈(이상 53회) 50만원, 조중완(54회) 30만원, 김현달 30만원, 이대호(이상 55회) 100만원, 심세준(56회) 50만원, 김민하(61회) 10만원 ▲단체-덕형리 100만원, 경미회 50만원, 경미회 대외협력분과 20만원, 경미회

미래발전분과 30만원, 38회 동기회 100만원, 용마골프회 50만원, 53회 동기회 53만원, 54회 동기회 30만원, 경야모(경야회 젊은피) 100만원-김주현(58회) 김동석 김상록 차우용(이상 59회), 김현우 김현중 유영재 최규환(이상 60회), 김재용 김성환(이상 61회), 강동호(62회), 이인승(64회).

◆물품 후원 내역=정신(47회) 참가상 볼 16타(140만원 상당), 섀프 온더 썬셋(대표 구남현) 애플칩 50박스, 익명 게토레이 9박스.

박종기(28회) 경남중고 80년사 편집위원, '모교 역사 추적' 말하다

경남중고의 정신, 그 핵심가치는 '도전, 열정, 공헌'

2020년 8월 중순 경남중고 80년사 편집위원으로서 모교의 역사를 정리하는 일에 합류해서 과거의 학교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내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우리 학교의 정신은 무엇일까? 경남중고의 80년 역사에 흐르는 대의(大義)는 무엇일까? 우리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정신을 배우고, 어떤 신념으로 사회를 살아왔던가?

필자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도 머리에 문득 떠오르지 않아서 '나만 모르나? 동문들에게 물어봐야겠다'고 걱정했다. 학교사에 관한 증언을 수집하는 자리이거나 각종 선후배 모임에 참석하는 기회를 활용했다. 이야기 중에 "혹시 경남중고의 정신이 뭘니까?"라고 질문을 던져봤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선배는 한 명도 없었다. 후배들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머뭇거렸다. 정의된 것이 없었으므로 학교 측도 답변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교훈이 아닐까?"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다. 알다시피 경남중 교훈은 '스스로 다스리자, 서로 돕자, 날로 새로워지자'이고, 경남고 교훈은 '근검자립하자, 규율을 지켜 자유롭게 살자, 책임을 다해 열려 살자'이다. 그런데 이 교훈들은 아무리 봐도 행동하는 요령을 정리한 것이지, 이념이나 정신으로 보기에는 하위 개념으로 느껴진다.

의문을 품은 채 모교의 80년과 동창회 70년 역사를 1년여 정리하는 중에 마침내 '경남중고 정신'을 3개의 단어로 함축할 수 있었으며, 내면에 차오르는 희열과 함께 밤새 벅찬 충만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래서 역사는 기록되고 보존돼야 하는 거야! 역사책은 지나간 일을 단순히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시간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혼(魂)과 이념을 이어가는 다리

라고 생각해야 해! 왜 그런 '키워드(Key Word)'로 함축됐는지 요약해서 설명해본다.

일제강점기 끝자락인 1942년 4월 30

일, 부산제2중학교가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얻어 간신히 개교했다. 학교 건립비용을 학부형이 부담하라는 조건과 함께... 대동아전쟁으로 모든 자원은 전쟁에 투입돼서 지방의 중학교까지 내려올 자금이 없었다. 부산 시내 초등학교 학부형들은 부산부를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학교건설자금 각출을 시작했고, 2년 가까이 모금해서 총독부가 내정한 금액에 도달해서야 설립 인가가 났었다.

5학년 과정, 한 학년에 2학급 100명이 모집 정원이었다. 내선공학(內鮮共學) 방침으로 조선인 자녀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었다. 전국에서 900명이 넘는 학생이 지원해 조선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결국 20명을 추가해서 120명을 뽑았는데 그 중 조선인 학생은 40명이었다. 80명의 학생과 모든 교사가 일본인이었던 상황에서 우리 1, 2, 3회 선배들은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차별대우와 혹독한 체벌을 참아내기 위해 얼마나 울분을 삼켰을까.

선배들은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나 해방이 되자마자 다가온 극렬한 좌우 이념투쟁을 사춘기에 겪었고 6·25동란을 몸으로 막아내면서도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한편, 수업을 마치고 짬을 내 단련했던 운동은 전국을 제패했다.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의 격변 속에서 정치 경제 학계 군 등 사회 전반의 중요 직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기둥



경남고 마크.

을 지탱해 온 저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모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물려줄 전통을 만들어 가고자 했던 선배들의 「도전(Challenge)」 정신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다.

수차례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과 함께 사회가 안정되어가던 60~70년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선배들은 국가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되어 후배들의 진로에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장학사업을 전개했고 조직적 지원을 통하여 후배의 성장경로를 열어주기 시작했으며, 이에 학교 측과 후배들 역시 선배가 만든 전통을 잇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응했다.

당시 학교평가의 척도였던 서울대학교 합격률은 서울의 3개 고교 다음엔 본교가 항상 4위로 지방에서는 수위를 견지했다. 대학입시 합격자 발표 시 수석을 차지한 동문의 이름을 발견하는 것은 예사였다. 야구, 송구, 축구, 검도, 농구, 수영, 펜싱, 사이클과 같은 종목에서 입상한 모교 운동부와 선수들의 이름은 수시로 볼 수 있었다. 문학 예술 예능 분야에서도 저명한 인사들을 배출했다. 이끌어 주는 선배, 전통을 기필코 이어서 확산시키겠다는 후배들의 노력은 「열정(Passion)」이란 단어로 표현하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80년대 중반을 가로지르는 민주화 운동, 90년대를 단아가던 IMF를 거치는 동안 젊은 세대의 의식에 큰 변화가

왔다. 어렵고 힘든 굴뚝산업의 취직보다 IT와 금융, 의학으로 직장관의 무게 중심이 이동됐다. 교육정책의 빈번한 변동도 한 몫 해서 SKY 학교 진학보다는 구조조정 당하지 않는 평생 학과 지망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경제적 여유와 정보의 보편화는 자신의 자유스럽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한편, 시선을 돌려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선(善)이라는 사회풍토로도 확산됐다. 이런 시기에 한국의 슈바이처가 나타났다. 한국 사회를 감동에 빠지게 한 고(故) 이태석(35회) 신부는 모교의 상징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이제는 "경남고" 하면 "아, 이태석 신부"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봉사해서 사회를 밝혀주는 일, 조직의 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 후배의 성장을 위해 선배가 베풀고 리드하는 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가족에 이바지하는 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세 번째 정신인 「공헌(Distribution)」이다.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던 모교의 역사를 어렵사리 수집하고 종합해서 모자이크를 완성해가고 있는 필자로서는 우리 경남중고의 정신, 이념, 핵심 가치가 바로 「도전, 열정, 공헌」이 세 가지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제 필자의 다음 숙제는 종래 써오던 '용마'란 단어가 과연 경남중고에 부합되는 아이콘(icon)인지를 밝혀보는 것이다.



글=박종기(28회)
경남중고 총동창회
모교80년사 편찬위
원회 편집위원

총동창회, 야구부 동계용 패딩트레이닝복 전달

총동창회에서는 지난 10월 26일 경남고 교장실에서 야구부 후배들의 동계용 패딩(롱&하프) 및 트레이닝복 세트(각 63벌·1,890만원 상당)를 전광렬 감독과 선수단에 전달(사진 왼쪽)하였다. 이 자리서 봉황대기 고교야구대회 출전 격려금도 전달(사진 오른쪽)했다.



안용백 초대교장, 전인교육 길라잡이 모교 '교훈' 첫 선포

경남중, 1952년 서중 부임 이갑도 교장 제정 교훈 지금도 사용
경남고, 추월영 교장 새 교훈...박경원 교장 1971년 수정해 전수

■모교 교훈 변천사

학교 정신의 결정체인 교훈은 그 학교가 지향하는 이상을 학생들이 스스로 실현하게끔 하는 '바이블'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정신을 되새겨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우리 모교 또한 다를 바 없다. '경남중·고등학교'의 정신과 기상을 상징하는 첫 교훈은 '해방공간'인 1945년 10월 29일 제정되었다. 안용백 초대교장이 부임하자마자 교무회의를 통해 '생각하고 創造하세 / 誠實히 責任 다하세 / 生氣 있게 끈기 있게'로 교훈을 채택, 선포했다. 경남중·고 분리 전 초창기였다. 1940년대에 보기 드물게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끊임없이 창조하는 인간', '책임을 다하는 인간', '끈기 있게 실천하는 인간'을 표방했다. 인성교육의 골격인 '창조정신과 양심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 고취, 진취적 기상'을 강조하고 있는 이 교훈은 제1회부터 9회까지 사용했다. 즉 해방 직후 폐교 전 '부산제2공립중학교' '경남공립중학교' 등에서 1951년 9월 학제가 중·고 각 3년제로 바뀌어 '부산서중학교'(현 경남중 전신)와 '부산제1고등학교'(현 경남고 전신) 시절 까지 '힘차게, 신나게' 열창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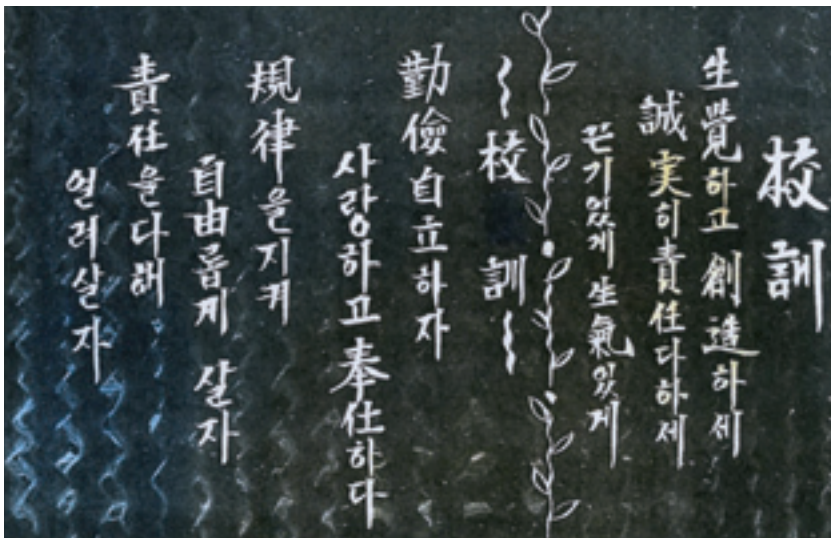
이후 부산서중학교는 '경남중학교'로, 부산제1고교는 '경남고등학교'로 각각 교명이 바뀔에 따라 양교는 각각 교훈을 제정했다.

■경남중학교

경남중학교는 1952년 2월 27일 이갑도 교장이 부임하자 다음과 같은 교훈 '스스로 다스리자 / 서로 돕자 / 날로 새로워지자'를 제정했다. 이 교훈은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않고 자기(나) 스스로 자신(나)를 절제하는 자율적 인간,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며 나아가는 상호 협력하는 인간,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해 한걸음 더 전진하는 인간을 지향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자주적·독립적 정신을 함양하고 상부상조하며 공존하는 슬기를 배양해 함께 신세계를 개척해 나아가자'는 뜻도 품고 있다. 이 교훈은 70여년 격동의 긴 세월 동안 올곧은 생명력을 과시하며 면면이 이어 오고 있다. 제10회부터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2022년 4월 30일 현재 제83회까지 재학생들은 학업 증진은 물론 고교 진학



모교 최초의 교훈과 교기. '보금자리' 5호에서 발췌.



▲추월영 교장이 만든 경남고 교훈. 8회 졸업 조봉석 동문 앨범에서 발췌.



추월영 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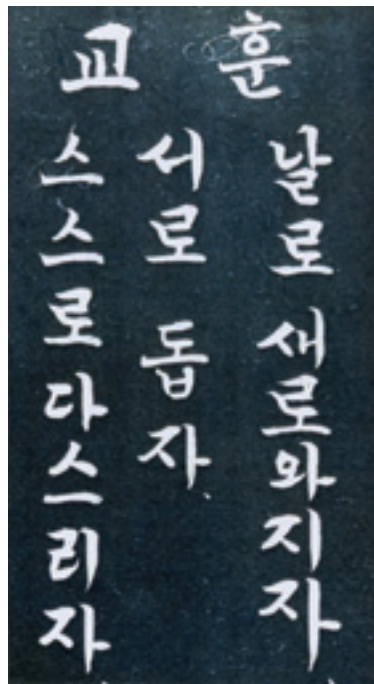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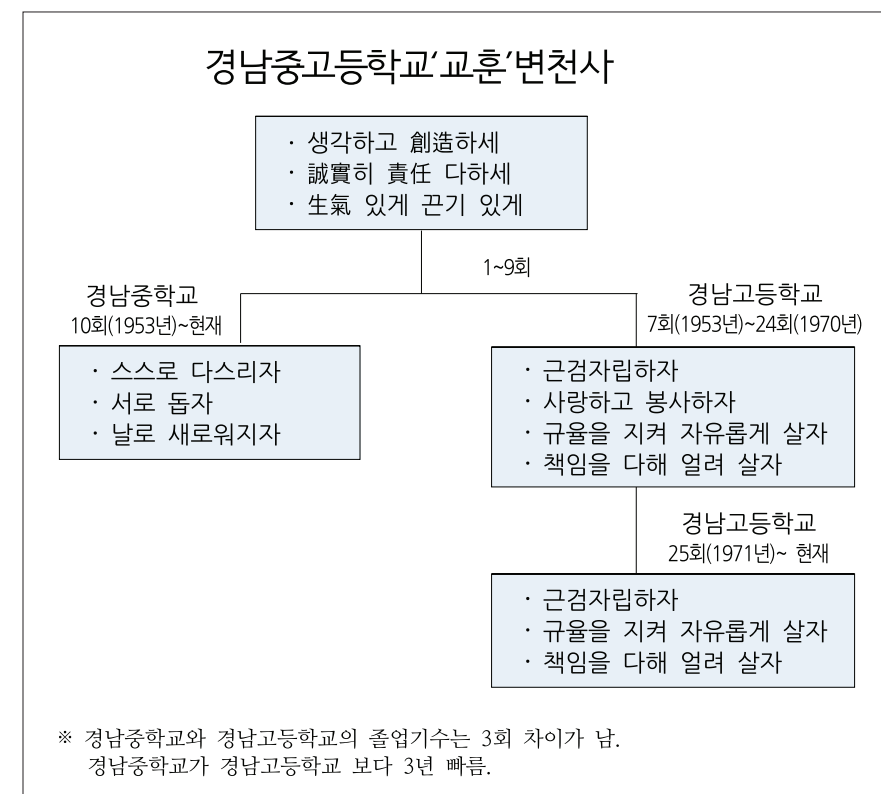


이갑도 교장

후 모범생 자리를 지켜 모교 명예를 선양해 왔다. 졸업생들은 하나같이 교훈이 품고 있는 넓고 높은 정신을 좌우명으로 삼아 대학 졸업 후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재 역할을 감당해 왔다.

■경남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교훈은 전신인 부산제1고등학교 때까지는, 1945년 10월 29일 안용백 경남중 초대교장이 부임해 처음으로 제정한 '생각하고 創造하세 / 誠實히 責任 다하세 / 끈기 있게 生氣 있게'를 함께 사용했다. 이후 1952년 추월영 교장이 부임해 비로소 경남고



이갑도 교장이 만든 경남중 교훈. 13회 졸업 신하근 동문 앨범에서 발췌.

등학교 시대의 교훈을 제정했다. 첫 번째 교훈이었다. 이는 '근검 자립하자 / 사랑하고 봉사하자 / 규율을 지켜 자유롭게 살자 / 책임을 다해 열려 살자'였다. 이 교훈은 '근면하고 검소하지 않으면 자립할 수 없고,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란 없으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화합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게으름을 용서하지 않으니 스스로 서는 것은 당연하고, 스스로 규율을 세우니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며, 자립하고 자율을 이루면 화합된 세계는 저절로 오게 된다'는 높은 뜻을 품고 있다. 나아가 '자신을 바로 세워서 화합을 주도하는 인간'이야말로 바로 살아 숨 쉬는 '경고인의 정신'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

교훈은 제10회부터 제24회까지 사용했다.

경남고등학교 시대의 두 번째 교훈은 박경원 제5대 교장(1961년 10월 23일 부임)이 재임 10년차인 1971년 3월 신학기를 맞아 바꿨다. 박 교장은 4개 항목으로 된 첫 번째 교훈 중 3항인 '사랑하고 봉사하자'를 빼고 나머지 3개 항목으로 줄였다. 이 교훈은 제25회부터 사용한 이래 2022년 4월 30일 모교 개교 80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무려 50년 동안 그 의미가 찬연히 이어지고 있다.



글=이요섭(27회)
경남중고 총동창회
모교80년사 편찬위
원회 편집위원

제23회 용마골프대회



용마골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범접 못할 기량 34회, “고수라 불러다오” 우승가(歌)

‘조별 분산’ 경기…개인전 우승 A조 이영훈(23회), B조 진상영(45회) 동문

부산컨트리클럽서 대회 성료

“최다 참가, 최다 기수, 최다 협찬이 란 대기록의 명성에 손색없이 대회를 무난하게 잘 치렀다. 나흘 전 KNN 주관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에서 우승한 감격으로 축제분위기가 됐다.”

지난 10월 18일(월)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제23회 충동창회장기 용마골프대회가 종료되고 나온 말이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 64조 256명이

참가한 행사를 ‘대회’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대회답게 치르려 했으니 진행 과정의 고충은 대단했다. 충동창회 사무국팀과 용마골프회 집행부, 진행요원 동문들의 노고가 컸다. 지난해 9월 제22회 대회를 ‘조별 운동’의 참가자 분산 방식으로 치러본 경험이 있어서 힘들었지만 무난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이날 대회는 1부 19개조가 오전 7시 5분부터, 2부 45개조가 오전 11시부터

각각 티오프에 나섰다. 마지막 조는 오후 1시 41분에 경기에 들어갔다. 물론 단체 기념사진도 없고, 시타도 없었다. 현장 시상식은 갖지 않았다. 시상식은 지난 11월 5일 오후 충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당일 행사의 혼잡을 고려해 경품 추첨은 사전에 진행됐다. 대회 나흘 전인 지난 10월 14일 오후 충동창회관 대회 의실에서 김대욱(29회) 충동창회장, 사무국원과 용마골프회 집행부 등이 참석, 1시간여 동안 진행하며 행운의 주인공들을 가려냈다.

큰 대회에서 큰 인물이 나뉘, 이번 대회에서도 발군의 실력으로 두각을 드러낸 동문은 단연 윤성부(34회) 동문이다. 윤 동문은 단체전 우승(34회·강승기 72타, 윤성부 69타, 황기운 73타)과 개인전 A조(1~35회) 메달리스트를 쟁취했다. 그야말로 ‘숨어 있던 고수’의 발굴이었다. 특히 34회는 지난해 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에 머물렀던 아쉬움을 달래게 되었다.

34회의 합산스코어는 214점으로 준우승 44회(김황 77타, 배봉건 78타, 정의석 74타)와는 무려 15점이나 차이가 나 기량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3위는 합계 231타를 친 38회(조병철 77타, 조석태 77타, 천병두 77타)가 차지했다. 44회 배봉건·정의석 두 동문이 KNN 주관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에서 우승한 점을 고려하면, 34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이 된다. 경남중고 동문 골퍼들의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개인전 A조 우승(이하 신페리오 방식)은 이영훈(23회), 준우승 최윤림, 3위 박장현(이상 26회), 롱기스트 이성훈(32회·245m), 니어리스트 오세용(29회·1.6m) 동문이, B조(36회 이후) 메달리스트는 정재우(50회·72타), 우승(이하 신페리오 방식) 진상영(45회), 준우승 이창(36회), 3위 정기섭(37회)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충동창회는 이날 대회 참가자 각 조별로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 우승을 자축하는 기념품 골프공 1다즌(3구×4명)씩을 전달했다.

<용마골프대회 이모저모>

의외의 회보 구독료 미납자들

○…충동창회 사무국은 골프대회 참가비 환불 처리를 하면서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 참가자 중 동창회보 구독료 미납자를 미리 체크했다. 참가자의 25% 가량이 되었다.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이 ‘총대’를 매었다. 참가비 환불 처리 자리에서 대상자에게 일일이 ‘참가비 3만원을 동창회보 구독료로 대체할 것인가’를 물었다. 대부분이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맞닥뜨린’ 까닭에 참가비를 구독료로 대체했다. 배송지 수정도 더러 있었다. 이 자리서 63명이 구독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일부는 구독료 납부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아예 납부를 거부하기도 했다. 최대 200만원 상당 등 많은 경품 당첨 가능성을 지닌 골프대회는 참여하되 연(年) 3만원 구독료는 외면하는 모양새였다. 경남중고 충동창회 회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참여 행위가 동창회보 구독료 납부임을 고려할 때 의외의 반응이었다. ‘동문의 자격’을 생각해보는 기회였다.

‘사무국 회식’ 기부금, 발전기금 입금

○…이날 참가비 환불 처리 자리에서 한 참가자가 사무국팀이 수고한다며

회식비로 사용해달라며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참가자가 물린 시간이고, 마스크를 착용한데다 얼떨결이라 누구인지 파악이 안 됐다. 봉투에도 이름은 물론이고 아무런 표식이 없었다. 사무국에서는 이 돈을 익명의 모교발전기금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벤츠 시상품 답례 올해도 계속

○…올해도 충동창회는 유재진(22회) 동문의 부산스타자동차(주)에 떡 선물을 했다. 유 동문이 이번 대회 홀인원 특별시상으로 벤츠 승용차 1대(성공 보험료 지불)를 제공한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 특히 이번에는 떡의 ‘퀄리티’를 높여 직원 400명의 간식으로 훌륭했다는 후문이다. 육한수(46회) 동문의 작품이었다.

진행요원 봉사, 대회 성공 요인

○…이번 골프대회의 성공 요인에 진행요원의 활약상을 빼놓을 수 없다. 사상 최다 참가로 인해 오전 7시 전부터 오후 8시 넘어서까지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 및 경품 확인·전달을 비롯, 각종 문의와 요구에 친절하게 응대하느라 진력을 다했다. 김신욱 성찬기(41회) 손창오(45회) 육한수(46회) 김석훈(50회) 이육한 장지훈(55회) 동문이다. 동문애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 제23회 용마골프대회 시상

1. 단체전(기수별참가자중 성적상위 3명합산 스코어 적용)

순위	기수	성명	합산스코어	시상내용		비고
				시상	상품(골프공)	
우승	34	강승기 윤성부 황기운	214	우승기	5 BOX	
준우승	44	김 황 배봉건 정의석	229	준우승기	3 BOX	
3위	38	조병철 조석태 천병두	231	3위기	2 BOX	

2. 개인전

A조(1~35회)

순위	기수	성명	성적		시상내용		비고
			스코어	점수	시상	상품(골프공)	
메달리스트	34	윤성부	69		트로피	5 BOX	
우승	23	이영훈	80	70.2	트로피	5 BOX	
준우승	26	최윤림	83	70.4	트로피	3 BOX	
3위	26	박장현	75	71.4	트로피	2 BOX	
롱기스트	32	이성훈	245	m	트로피	2 BOX	
니어리스트	34	강승기	1	m	트로피	2 BOX	단체전우승자제외
	29	오세용	1.6	m			

B조(36~55회)

순위	기수	성명	성적		시상내용		비고
			스코어	점수	시상	상품(골프공)	
메달리스트	50	정재우	72		트로피	5 BOX	
우승	45	진상영	91	69.4	트로피	5 BOX	
준우승	36	이 창	75	70.2	트로피	3 BOX	
3위	37	정기섭	80	70.4	트로피	2 BOX	
롱기스트	38	조용철	290	m	트로피	2 BOX	기수우선시상
	43	김동현	290	m			
니어리스트	44	정희정	0.25	m	트로피	2 BOX	

제23회 용마골프대회



용마골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최다 참가, 최다 기수, 최다 협찬’에 즐거움도 “굿샷!”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초원 위에서 잠시 ‘말 타기’ 놀이하는 선수들.



나무 아래서 쉬어가는 선수들.



‘남는 게 사진?’ 운동 중 촬영도 열심인 선수들.



우정 쌓기 쉬운 시간.



종일 수고한 진행요원들.

제23회 용마골프대회 후원 현황

2021년 10월 18일(월)

현금 후원					
기수	이름	금액(만원)	기수	이름	금액(만원)
16	송 규 정	100	34	이 진 호	50
20	박 용 덕	100	35	장 인 화	100
23	이 병 찬	50	35	정 윤 성	50
24	곽 두 회	50	37	이 수 환	30
24	노 상 우	50	37	허 부 남	100
25	김 익 수	100	38	오 회 진	50
25	박 세 철	50	38회 단체		100
25	박 중 찬	200	39	박 근 태	30
28회 동의회		50	40	우 영 환	100
29	김 대 옥	500	40	한 수 열	30
30	김 현 태	100	41	전 삼 록	30
30	최 우 철	500	44	탁 정 환	100
31	류 명 석	20	45	김 상 수	30
31	박 중 호	100	45	진 상 영	20
32	김 상 권	100	50	정 재 우	100
32	이 성 훈	100	경야회		50
32	이 중 휘	300	덕형리그		100
33	김 법 영	50	합 계		3,590

물품 찬조		
기수	이름	내용
19	이 용 흥	전자제품 교환권 (50만원 상당)
22	유 재 진	홀인원 상품 벤츠자동차 1대, 골프백 3개
23	김 영 기	티마스터 10개 (100만원 상당)
23	이 상 수	뉴트라라이프 건강기능식품 20세트 (200만원 상당)
33	박 명 진	삼성 냉장고 1대 (150만원 상당)
36	박 진 용	라식수술권 (200만원 상당) 1매
		LED 마스크 (150만원 상당) 2개
37	이수환,허부남	대회 당일 치킨 60마리(100만원 상당)
38	신 동 훈	방풍 가디건 30벌 (1100만원 상당)
40	한 수 열	삼성기프트상품권(10만) 2매
41	최 영 준	해동병원MRI촬영권(50만) 2매
42	정 용 중	이가한우 외식상품권(10만) 5매
44	정 의 석	수산물세트 5세트
45	구 자 삼	메로선물세트(5만원 상당) 6세트
45	김 상 수	브리지스톤 3피스 10더즌
47	배 준 수	세인트나인 45박스 (200만원 상당)

제23회 용마골프대회

34회 우승 주역 윤성부 동문에 '스포츠라이트'

역대 최대 규모...총동창회관서 시상식



용마골프대회 단체전 우승팀 34회 선수단이 김대옥 총동창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제23회 용마골프대회는 64개조 256명, 최다 참가의 대기록을 남겼다. 코로나19 방역체제 하에서 대기록이 부득이하게 부담이 되는 점도 있다. 경품 추첨 및 수여와 시상식이다. 현장 경품 추첨은 혼잡스러울 게 뻔한 이치. 사전 경품 추첨을 통해 일부는 당일 골프장 현장에서 전해주고, 주요 경품은 따로 전달하기로 했다. 게다가 골프장 내 단체 모임은 금지라서 시상식도 별도로 날을 정했다.

○...이번 용마골프대회 시상식은 지난 11월 5일 오후 총동창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과 곽두희(24회) 자문위원장을 비롯, 각 수상자들과 대리수상자, 총동창회 사무국장, 주관처인 용마골프회 집행부 등이 참석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이 자리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렀는데 성황리에 끝나 감사드린다. 골프와 관련해 좋은 일이 이

어진 것이다. KNN 주관 제14회 파크랜드배 고교동문 골프최강전에서 우승했다. 앞으로도 골프 애호 동문들이 자주 모여 유대를 돈독히 하고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 총동창회장이 단체전과 개인전 A조를, 곽 자문위원장이 개인전 B조를 시상했다. 이벤트 시상은 현응열(29회) 사무총장이 맡았다(수상 내역은 8면 게재).

단체전 1위 34회 대표 강승기(대리참석 이승엽) 윤성부 황기운 동문이 참석, 우승기와 부상을 전달받았다. 이날 윤 동문은 경품에서 유재진(22회) 동문이 협찬한 벤츠 골프백도 당첨돼 혜성처럼 나타난 주인공(?)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벤트로 최다 버디상(김경곤(38회) 외 5명), 최다 파상(송영근(25회) 정순환(39회)), 최다 보기상(정량부(17회) 윤상훈(44회)), 행운상(서승진(46회·100타) 김춘호(48회·256위))이 있었다.

사전 경품 추첨, 1시간여 걸려

이날 총동창회는 수상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마련했다.

○...제23회 용마골프대회 경품 추첨행사가 지난 10월 14일 총동창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다 협찬의 진기록으로 경품 수가 총 136점이나 되어 장장 1시간여에 걸쳐 추첨이 진행됐다.



용마골프대회 경품 추첨 모습.



용마골프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3회 용마골프대회 참가자 명단 =송규정(16회) 서정승 이성훈 정량부(이상 17회) 이용흙 장흥희(이상 19회) 유재진(22회) 김정록 김태용 원인건 윤순현 이병찬 이부식 이영흔 전상대 최인식(이상 23회) 곽두희 김성권 노상우 박극제 변중석 안상수 여철우 정영환(이상 24회) 김익수 김종국 김진우 박광용 박종찬 박진국 송영근 안영복 안희석 이명철 장세훈 한석정(이상 25회) 김두천 김종우 박장현 조만석 최윤림(이상 26회) 박종기(28회) 김대옥 김용채 문창건 박봉구 오세용 이문열 정길 추연철(이상 29회) 김재수 김해곤 박광호 박인달 이명건 정해석(이상 30회) 공종렬 김종규 류명석

박종호 안용모 조성근 천장호 최봉근 최효식(이상 31회) 김동균 김종식 김형국 변문성 이득우 이성호 이성훈 이재수 이종휘 장영택 전성환 정용운 현태명 황문찬(이상 32회) 김윤성 김재도 박상국 박용득 박태종 송종현 윤상현 이동근 이윤조 주기훈 최용남 황영복(이상 33회) 강승기 윤성부 이상운 이승엽 이진호 황기운(이상 34회) 손수범(35회) 박진용 이창 정홍원 최재혁(이상 36회) 김형기 정기섭 조성각(이상 37회) 곽동열 구동주 권두성 김경곤 박정민 박준홍 백두만 이수관 이종일 정재형 조병철 조석태 조용철 주재훈 차정호 천병두 한민득(이상 38회) 김규웅 김윤홍 김종엽 문병운 박

부곤 박용한 서은식 안승진 이종욱 이종운 정순환 최보식 하순호(이상 39회) 김용철 노인철 배병훈 배진수 안성호 우영환 윤경학 이기 임태영 한수열(이상 40회) 강병오 강석희 강훈 박정기 박정호 백선민 서백중 양성욱 이종우 전삼록 최영준(이상 41회) 곽창우 김현오 남화정 박동식 송정열 신봉준 정용중 정홍준(이상 42회) 김대영 김동현 김영휘 김진규 김희경 박경석 박상순 박형규 이학노 최영동(이상 43회) 권상근 김항 문형준 배봉건 심재홍 안병규 윤상훈 임정훈 정의석 정종운 정희정 탁정환 한수성(이상 44회) 구자삼 권우일 김상수 김종현 이광석 이규진 이동희 정일균 정행덕 진상영

최상배 최재근(이상 45회) 강남구 김대옥 김철홍 김태영 김희택 문정기 백경택 서승진 서용택 신정일 안명기 이재광 이태환 정효영 주창식 하성룡(이상 46회) 감기환 배준수 장순재 정래권(이상 47회) 김춘호 김태균(이상 48회) 김성구 정준용(이상 49회) 김기원 김동현 김재웅 김재호 김정현 백광선 백송현 이상준 이종길 정재우 차승준 황현우(이상 50회) 구민석 서성호 손익선 이지모 임용관 정유석 최우영 최환석(이상 51회) 김민철 김지은 정상중 한중현(이상 52회) 박정진 안영재 우재준 이봉희(이상 53회) 이동준 임길환 정준섭 조중완(이상 54회) 한재호(55회)

“오늘의 나를 키운 모교에 감사 기부 독립운동가 조상의 뜻에도 부합한 일”

전용우(24회) 동문, 경남중 발전기금 5천만원 전달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사회와 국가의 배려 덕택에 ‘입신(立身)’하였다고 나를 자평합니다.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저를 키워준 모교의 후배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게 할아버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오후 경남중 교장실을 방문한 전용우(24회·법무법인(유) 화우 고문) 동문의 말이다. 전 동문은 이날 모교 경남중에 발전기금 5천만원을 기부하기 위해 사전 논의 차 들렀다.

전 동문의 증조할아버지는 우경(寓耕) 혹은 울산(栗山) 전상무(田相武·1851~1924) 선생이다. 우경 선생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1896년의 령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병신창의(丙

申倡義)에 동참하였다. 1919년 11월 의친왕 이강 등과 함께 일명 33인의 제2 독립선언서에 이름을 올리고 국권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분이다.

우경 선생에게는 지난해 11월 건국훈장 애족장이, 올해 1월 국가유공자증서가 추서되었다. 의병활동 120여년 만의 일이다. 전 동문은 “증조할아버지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전해 듣지는 못했다. 몇 해 전부터 증조할아버지의 행적을 당신의 ‘울산문집’ 등 관련 자료를 추적하여 발굴하였다”고 말했다.

조상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선지 자신 역시 지난 45년여 동안 국방분야에 종사하며 국익을 위해

살아왔다는 전 동문. “전형적인 유교집안의 후손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 생활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전 동문은 이번 기부와 관련, “후배들이 주어진 삶(공부 및 사회활동)을 즐기고 미래의 꿈을 갖고 인류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기를



전용우(24회) 동문(왼쪽에서 두 번째)이 경남중 발전기금 5천만원을 충동창회사 무국을 방문해 기부했다.

모교 발전기금 1천만원 쾌척

장학금 1학기 300만원씩 연 600만원 약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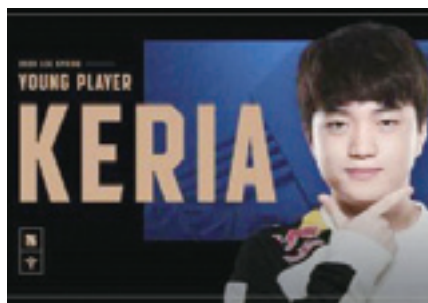
경남중 제75회 졸업생 프로게이머 류민석 동문

경남중 제75회 졸업생으로 현재 대한민국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로 활약 중인 류민석(아이디:KERIA) 동문이 학교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쾌척하고, 매 학기 300만원씩 연 600만원의 장학금 기부를 약정했다.

류 동문은 경남중 졸업 후 프로 E-SPORTS에 진출했다. 2019 LoL KeSPA Cup ULSAN 4강, 2020 우리는

행 LoL Champions Korea Summer 준우승, 리그 오브 레전드 2020 월드 챔피언십 8강, 2021 LoL Champions Korea Spring 4위, 2021 LoL Champions Korea Summer 준우승, 2021년 스프링, 서머 시즌 1st 서포터 선정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닌 역대급 프로게이머이다.

학교발전기금 및 장학금 약정식에 참석한 류 동문의 어머니에 따르면, 류 동문은 중학교만 졸업한 후 프로세계에 진출한 터라 본인이 마지막으로 졸업



프로게이머 류민석 동문.

한 모교인 경남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고 한다. 또한 본인도 어린 시절 부모의 생업으로 인해 할머니 손에서 성장한 추억이 있다며, 모교의 발전과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들의 미래를 성원하는 뜻에서 학교발전기금과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경남중 김미정 교장은 류 동문의 뜻을 존중, 학교발전기금으로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시설 개선 및 복지비용으로 충당하고,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중은 이번 류 동문의 기부를 계기로 ‘품성과 역량을 갖춘 글로벌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학교 교육목표에 걸맞게,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 모두가 힘을 모으고 더욱 정진할 것임을 다짐했다.

5년 전 일본골프원정 때 넘어져 끊어진 왼쪽 어깨인대 수술 후 골프를 거의 포기했다. 지난 2월초 충동창회장 자리를 물러난 뒤 수술결과검사를 받아보니 이제는 골프를 쳐도 된다는 다행스러운 판정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에도 야외 활동인 골프모임은 지속적으로 허용해왔다. 정산CC VVIP회원권이 있었다. 30회 이후 후배들과 동반라운드를 통해 만남을 지속하는 것이 동문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섰다. 지난 3월 7일 시작했던 후배동반라운딩 프로그램은 10월 4일 55회를 마지막으로 약 7개월 만에 끝났다. 스크린골프를 통해 골프를 사랑하는 동문들이 꽤 많아 부킹대란의 인기속에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박종찬(25회) 고문

“동문회 단합은 만남이 답이다”

박종찬(25회) 고문, 동문 골프 릴레이 결산

처음 만나는 후배도 있었지만 플레이와 식사를 하는 최소 5시간동안은 편안한 대화를 통해 동문간 선후배간의 정이 흐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동문회 활성화는 ‘만남이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보람이 있었다.

앞으로도 정산CC를 경험하고 싶은 동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렴한 경비로 모실테니까 연락주시요. 만남은 지속됩니다. 10월 14일

KNN배 고교대항 결승전에서 경남고의 우승도 골프동문들에게 기를 붙여 넣은 결과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동반라운딩 동문(총101명)=△30회(3) 이명건 정순길 박인달 △31회(5) 김종규 이병태 류명석 전중욱 박경수 △32회(3) 정용운 이종휘 백영태 △33회(3) 이윤조 김운성 박태종 △34회(3) 이진호 조선 황기운 △35회(3) 손수범 박창석 박외병 △36회(3) 박진용 최재혁 이창 △37회(3) 장원익 조성각 정기섭 △38회(9) 이수관 천병두 조용철 구동주 정재형 김경곤 오희진 권두성 박

정민 △39회(3) 정순환 정우영 김종엽 △40회(4) 배병훈 한수열 박근성 우영환 △41회(5) 최영준 강훈 백선민 전삼록 추교용 △42회(6) 김현오 문지성 정용중 신봉준 박동식 김영태 △43회(3) 박형규 이진배 이정렬 △44회(5) 안병규 윤상훈 탁정환 문형준 배봉건 △45회(7) 김상수 이규진 구자삼 권우일 최상배 최재근 이광석 △46회(3) 김백권 최원석 백경택 △47회(4) 정신 조덕만 서정민 배준수 △48회(2) 김태균 김춘호 △49회(2) 최진영 최유탄 △50회(3) 정재우 박종현 김동현 △51회(5) 정유석 구민석 김동주 최우영 오성진 △52회(4) 정상중 김민철 박재용 한중현 △53회(4) 우재준 이원준 황종민 박성영 △54회(3) 정준섭 임길환 손희원 △55회(3) 이육한 이대호 장지훈.

총동창회 개정 회칙

제 1 장 총 칙

회 칙

지난 10월 12일 열린 경남중고 총동창회 비대면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14차 개정 회칙 전문을 소개한다. 붉은색 활자는 이번 개정 작업에서 수정 또는 신규로 첨가된 내용이다.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경남중고등학교총동창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18(부평동4가) 소재 총동창회관내에 둔다.
- 제 4 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2. 동창회보, 동창회 회원명부, 동창회보 축쇄판 등 동창회와 관련한 출판사업.
 3. 모교 교육환경 확충, 장학증진 활성화, 모교 변천사 편찬 등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4. 재단법인 용마장학회를 통한 장학사업 및 동창회관의 운용과 관련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 제 5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경남중학교(토성중학교),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재학 중 전학한 자
 2.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자로서 이사의 결의로 명예회원에 추대된 자.
-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동창회보 구독료 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제 7 조 (회원의 자격 상실)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제한 또는 상실 시킬 수 있다.

제 3 장 기 구

- 제 8 조 (기구) 본회에 사무국과 (재)용마장학회를 둔다.
1. 본회의 운영은 총회,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결의와 위임사항에 따라 실행한다.
 2. (재)용마장학회의 재정적 운영 및 집행은 (재)용마장학회에서 관장한다.
- 제 9 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회무 집행의 감독.
 5. 기타 이사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추진
- 제 10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순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회에서 소집을 의결할 때.
 - (3) 회원 10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소집공고는 총회일자로부터 최소10일 전에

동창회보, 동창회밴드 등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한다.(신규제정)

- 제 11 조 (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 제 12 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상임·기획·총무·재정·체육·조직·홍보·사업·문화·대외협력·봉사·법률자문·해외·정책·보건·직능·의료·지역·IT·야구·동호 등 필요한 부문별 담당부회장을 두고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심의.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3. 고문(상임고문)과 명예회장의 추대.
 4. 회장, 감사의 총회선출을 위한 추천 결의
 5. 동창회관장 및 사무총장의 임명 동의
 6. (재)용마장학회에 이사, 감사의 임명 추천
 7.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8. 명예회원의 자격 취득 및 회원의 자격상실 등에 관한 심의 및 의결
 9. 동창회 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의결
 10.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제 13 조 (이사회 구성)
1. 당연직 이사 : 고문, 회장, 자문위원, 부회장, 동기회 회장, 동창회관장
 2. 이사회에서 인준 받은 지역, 지구, 직능, 동호동창회의 각 대표

- 제 14 조 (이사회 소집)
1.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총회 직전에 소집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수시 소집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소집공고는 총회일자로부터 최소10일 전에 동창회보, 동창회밴드 등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각 이사들에게 통지한다.(신규제정)

- 제 15 조 (이사회 결의)
1.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단, 회칙 12조 8항, 9항에 대한 결의는 출석회원의 2/3이상의 결의로 한다.
 2. 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의 회원 1명을 지명하고 그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위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한 양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16 조 (사무국) 사무국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와 경리 사무를 관장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회무를 처리하기 위한 상근 직원은 별도로 관리한다.)

3.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과 간사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5.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이 사무총장 등을 해임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6. 사무총장은 무급으로 하고, 사무국장과 간사는 유급으로 한다. 단, 사무국장과 간사의 급여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 제 17 조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모임 개최)
1. 회장은 회무집행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신규제정)
 2. 집행위원회는 제12조 부분별 직무를 상시 보좌하는 부회장으로 구성한다.(신규제정)
 3. 집행위원회는 회장(또는 회장의 동의를 받은 수석부회장)이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 제 18 조 (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토의 결의하여 추후 이사회에 보고 후 추진을 받는다.
1. 회 운영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동창회보와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3. 지역과 직능 동창회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5. 기금 수급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모교지원에 대해 (재)용마장학회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 제 19 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상임고문 포함)
 2. 명예회장 : 1명
 3. 회장 : 1명
 4. 자문위원 : 약간 명(위원장 포함)
 5. 수석부회장 : 1명 또는 2명(1수석과 2수석)
 6. 부회장 : 30명 이상으로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회장과 같은 동기생으로 구성), 일반위원회로 나눈다.
 7. 이사 : 회칙 제3장 제13조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8. 감사 : 약간 명
 9. 동창회관장 : 1명

- 제 20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고문(상임고문 포함)과 명예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동창회관장은 회장과 용마장학회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 결의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기사 12면에서 받음>

3. 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신규제정)

제20조의 1 (임원 등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차기 정기총회일자 신입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기간(1년)으로 하며, 총회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동창회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1조 (임원의 직무)

1. 고문(상임고문 포함)과 명예회장, 자문위원은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직무대행의 순서는 1수석부회장, 2수석부회장,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4. 감사는 회무집행과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평상시에도 이사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동창회관장은 용마장학회 이사를 겸하며, 동창회관의 운영을 총괄한다.(신규제정)

제22조 (동기회) 회원은 졸업 연도별로 동기회를 결성하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기회 회장은 회무 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역과 지구, 직능과 동호동창회)

1. 회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동창회를, 종사 직능에 따라 직능동창회, 취미에 따라 동호동창회를 결성할 수 있다. 부산과 서울에는 지구동창회를 둘 수 있고, 지구동창회 산하의 소지역에는 지회동창회를 둘 수 있다.

2. 지역과 지구, 직능과 동호동창회 대표는 사무국에 등록하고, 회무현황을 수시로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3차 개정 2010년 3월 16일
4차 개정 2011년 3월 29일
5차 개정 2012년 3월 21일
6차 개정 2016년 3월 7일
7차 개정 2017년 3월 9일
8차 개정 2018년 3월 7일
9차 개정 2019년 3월 6일
10차 개정 2020년 3월 25일
11차 개정 2020년 7월 7일
12차 개정 2020년 10월 28일
13차 개정 2021년 1월 23일
14차 개정 2021년 10월 12일

제6장 재 정

제24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회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동창회보 발행재정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4. 회계연도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은 199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차 개정 2007년 3월 28일
2차 개정 2008년 6월 25일

제5장 동기회, 지역·지구 및 직능·동호동창회

알려드립니다

「경남중고 동창회 2022년 회원총명부」가 발간되었습니다. 「2022년 회원총명부」를 구입하시는 동문님에게는 내년 모교 개교 80주년에 즈음하여 발간될 「경남중고 80년사」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최근 배포된 「2022년 회원총명부」의 ‘학고 연혁’ 부분을 경남중고80년사 편집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시점과 표현에 있어서 오류가 몇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출판사측이 「2022년 회원총명부」 발간을 서두르다 가편집본에 관한 최종 검토 기회를 경남중고80년사 편집위원회와 갖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교 80년사에는 역사적 사실이 정확히 기록될 것입니다. 동문님들께서는 「2022년 회원총명부」의 연혁 부분에 대해서는 패념치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남중·고 총동창회

수시 기부 명칭 부여자 협찬 기여도 통계

협찬금은 사무국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만 통계에 넣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작성

다이아몬드 5억원이상 0명 2021년 협찬					골드 3천만원이상 22명 2021년 협찬					실버 1천만원이상 26명 2021년 협찬					브론즈 5백만원이상 42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					1	9	조동훈(미)	3056만원		8	17	이 세 복	1000만원		11	25	김 익 수	700만원	100만원
					2	15	김 경 일	4000만원		9	17	최 성 호	1000만원		12	25	박 세 철	530만원	50만원
					3	16	엄 중 원	3000만원		10	19	황 태 원	1000만원		13	25	손 기 천	550만원	
					4	19	이 용 흥	4150만원		11	20	김 형 오	1000만원		14	25	송 정 규	550만원	
					5	20	박 용 덕	3100만원	100만원	12	20	허 규 판	1000만원		15	25	이 명 철	710만원	
					6	21	손석보(미)	3064만원		13	21	강 창 수	1700만원		16	26	김 상 현	500만원	
					7	23	김 중 광	3100만원		14	21	전 재 호	1000만원		17	26	박 재 욱	500만원	
					8	25	서 병 수	3000만원		15	22	김 학 균	1000만원		18	26	박 효 대	500만원	
					9	27	박 치 호	4000만원		16	22	박 재 상	2000만원		19	26	하 원 규	500만원	
					10	28	백 영 호	3200만원	100만원	17	22	장 성 덕	1000만원		20	27	김 태 우	550만원	
					11	29	박 성 철	3500만원		18	22	장 성 복	1000만원		21	27	문 두 찬	600만원	
					12	30	김 현 태	3250만원	100만원	19	22	허 범 도	1000만원		22	28	구 영 소	500만원	
					13	31	박 중 호	3350만원	100만원	20	28	노 영 현	1400만원	100만원	23	28	이 원 철	900만원	50만원
					14	31	홍 성 수	3320만원		21	30	정 경 목	1000만원		24	28	최 강 호	500만원	
					15	33	김 법 영	4250만원	50만원	22	32	이 중 회	710만원	1300만원	25	29	이 석 조	600만원	
					16	35	장 인 화	3300만원	100만원	23	33	이 순 환	1000만원		26	30	김 해 곤	700만원	
					17	36	박 진 용	3150만원		24	33	최 웅 남	1300만원	500만원	27	30	윤 인 태	610만원	
					18	38	정 재 형	3050만원		25	34	박 철 웅	500만원	550만원	28	30	이 명 건	530만원	
					19	39	박 근 태	3140만원	30만원	26	34	이 진 호	1250만원	550만원	29	30	이 학 수	700만원	
					20	40	우 영 환	3500만원	100만원						30	30	허정택(미)	615만원	
					21	44	탁 정 환	3400만원	100만원						31	31	남 기 태	700만원	
					22	47	정 신	3210만원	300만원						32	31	류 명 석	660만원	20만원
															33	31	오 민 일	600만원	
															34	31	이 병 태	600만원	
															35	31	정 철 수	500만원	
															36	34	이 재 완	550만원	
															37	39	백 기 현	810만원	50만원
															38	41	김 정 태	100만원	410만원
															39	41	이 양 걸	800만원	
															40	41	최 영 준	100만원	410만원
															41	44	안 병 규	600만원	
															42	64	표 중 빈	500만원	

루비 3억원이상 1명 2021년 협찬					사파이어 2억원이상 1명 2021년 협찬					에메랄드 1억원이상 4명 2021년 협찬					플래티늄 5천만원이상 13명 2021년 협찬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No	기수	이름	금액	
1	29	김 대 욱	6900만원	3억원500만원	1	25	박 중 찬	1억4000만원	1억200만원	1	11	오 완 수	1억원		1	13	이 경 재	5100만원	
										2	23	김 영 기	1억2300만원		2	16	송 규 정	5400만원	100만원
										3	30	최 우 철	1억700만원	500만원	3	17	최 만 식	5000만원	
										4	33	박 명 진	1억300만원		4	18	김 길 제	5200만원	
															5	19	이 부 성	5000만원	
															6	22	유 재 진	6400만원	
															7	24	박 흥 규	5000만원	
															8	24	전 용 우		5000만원
															9	25	김 진 철	6400만원	
															10	26	박 상 호	5050만원	
															11	30	윤 성 덕	6350만원	
															12	37	허 부 남	5400만원	100만원
															13	38	권 두 성	7200만원	



강서지구동창회는 예영일(28사진 가운데) 동문을 대상으로 동문탐방 시리즈 제19탄을 시행했다.

강서지구동창회, 예영일(28회) 동문 탐방

○...강서지구동창회 동문탐방 시리즈 제19탄이 지난 11월 29일 예영일(28회) 동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김종규(31회) 회장, 이수관(38회) 사무국장, 구민수(50회) 조직차장이 함께 탐방길에 나섰다.

동양라이트 구내식당과 '김해본가 뒤통기' 신호점을 운영하고 있는 예동문은 현재 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이력의 소유자이다. 영남대에서 화학을 전공한 예동문은 대한조선공사에서 20년을 근무한 뒤 명예퇴직, 이후 개인사업(부동산경매, 고철업, 건설업)을 펼치다 4곳의 조선·선박 기업체의 임원(대표이사까지도)으로 활약했다. 학구열이 강한 예동문은 또

양산 과학기술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여 사회복지사2급·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같은 놀라운 이력을 지탱한 것은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이었다. 항상 음악과 함께하는 예동문은 젊은 날 음악다방DJ, 밴드 결성 등으로 음악에 푹 빠져 살았다. 한때 LP판 2,000장을 수집(몽땅 도둑 맞음)할 정도였다. 현재 600장의 CD를 갖고 있다. 지금은 헤비메탈을 제일 좋아하고 추억의 디스코도 즐겨 듣는다고. 음악 이야기로는 밤을 새울 정도인 예동문은 "BTS는 비틀즈 이후 최고의 아티스트"라며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찬김택영 고문, 단합대회 주재

○...강서지구동창회는 최근 고문들을 중심으로 두 번의 단합대회가 이루어졌다. 지난 11월 3일(수) 사하구 당리동 한 호텔에서 김택영(26회) 고문의 주재로 단합대회(사진 왼쪽)가 열렸다. 최고의 자연산 회를 먹으며 단합과 우정을 쌓았다.

참석자 : 김택영(26회) 조광제(28회) 김종규(31회) 김창범(32회) 이수관(38회) 김성준(44회) 박진수(45회) 이정우(51회)

이어 이튿날에는 강서지구 명예고

문인 박종찬(25회) 고문이 용호동 65층 W아파트로 강서지구 동문 11명을 초청, 우애를 나눴다. 넓게 펼쳐진 바다조망에 위스키 강연까지 밤 11시가까이 펼쳐진 이날 모임은 뜨거운 단합의 장이 되었다.

참석자 : 박종찬(25회) 이동석(이상 25회) 백영호(28회) 김종규(31회) 김창범(32회) 이수관(38회) 김성준(44회) 박진수(45회) 구민수(50회) 우재준(53회) 류태용(54회) 김덕형(66회).



울산 용마야구단, 일각고래부 리그 우승



울산 일각고래부 리그 경기에서 우승한 울산의 용마야구단.

울산지역 경남고 동문을 주축으로 활동 중인 용마야구단이 울산남구야구소프트볼협회 주관 일각고래부 리그 경기에서 우승했다. 일각고래부 리그에는 울산지역 야구동호인

김해지역, 2년 만의 공식 모임 '화기애애'

5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김해지역동창회가 지난 12월 2일 오후 김해 어방동 바다마을회타운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2년 만의 공식 모임이었다. 연초에 갖지 못한 회장 이·취임식을 먼저 가졌다. 차의수(29회) 전임 회장이 박원근(32회) 현 회장에게 김해지역동창회기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차 전임회장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이어 올해 처음 가졌던 새해맞이 9행시 경연대회 시상식도 열렸다. 차 전임회장이 대상을 차지, 1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김성준(44회) 동문이 받았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2년 만에 공식적으로 갖는 특

별한 모임이다. 마음껏 즐겨달라"면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동창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지역동창회는 이날 총동창회 지원금 30만원을 전했다. 총동창회는 격려금을 전달했다.

참석자: 이상운(23회) 최연삼(28회) 차의수 박희규 박광수(이상 29회) 황성철(31회) 박원근 양문성(이상 32회) 한원일(34회) 김규선 김용진 박형철 장정재(이상 36회) 김기덕(37회) 이태훈(38회) 김춘강 이남주 손균효 장갑구 손옥명(이상 40회) 송대성(43회) 조영호(44회) △총동창회-현응열 사무총장, 김종명(이상 29회) 동창회보 편집주간, 윤원욱(39회) 사무국장.



김해지역동창회가 2년 만에 공식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총동창회장과 남부산지구, 공식 상견례 가져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의 남부산지구동창회 공식 방문이 지난 12월 3일 오후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열렸다. 남부산지구 집행부와 원로급 동문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이후 나름대로 총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리틀야구회 개최, 야구후원회 출범, KNN골프대회 우승 등 좋은 일도 많았다. 최근 들어 후배 기수의 열성적 참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내년 1년 더 회장직을 수행할 생각이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히고 "총동창

회가 봉사와 배려의 덕목을 닦아나가는 자리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종휘(32회) 남부산지구 회장은 "그동안 미뤄져 오던 행사를 해를 넘기지 않고 실현돼 기쁘다. 남부산지구가 총동창회 발전과 활성화에 앞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기수순): 이종철(16회) 정량부(17회) 과두희 이수(이상 24회) 김지원(27회) 김대욱 김종명 현응열(이상 29회) 이종휘(32회) 조선(34회) 윤원욱(39회) 한수열(40회) 정용중(42회) 조청래(45회) 김석훈(50회).



김대욱 총동창회장의 남부산지구동창회 공식방문이 지난 12월 3일 진행됐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클럽 10개 팀이 참가했다.

용마야구단은 2021년 리그전 총 13개 임을 진행한 결과 9승 4패로 리그 2위를 차지, 4강이 겨룬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용마야구단은 준결승(11월 7일 성암야구장)에서 울산 몬스터즈 팀을 7대5로 꺾는데 이어 결승(11월 14일 장생포야구장)에서 울산 챌린저야구단을 12대5로 대파, 우승을 차지했다. 2005년 창단

첫해 대회 우승을 차지한 지 15년 만의 정상 탈환이어서 감동을 더했다.

용마야구단에는 권기택(28회) 김태명 추연철(이상 29회) 이순환(33회) 박희찬(35회·단장) 홍용(37회) 박부곤(39회) 류지영(43회) 안성만 이현(이상 44회·감독) 전준형(46회) 고경민(48회) 박영진(52회) 이영제(67회) 동문이 활동하고 있다.

혼술혼밥의 시대에 끈끈한 의리와 정을 나누는 우리

각고의 노력 53명 참가 대성과, 회포 진하게 풀어
“선배들 사랑에 큰 감동…‘내리사랑’ 전통 잇겠다”

“미약한 시작으로 출발하여 아직 창대한 미래는 아니나, 자리 잡혀가는 모습에 흐뭇했다.”

지난 11월 27일(토)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최선을 다해, 활기차게 치른 55회 동기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오후 6시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55회 동기생은 53명이 참가했다. 나이는 ‘불혹(40세)’이나 모두가 폐기찬 얼굴들이다. 지난 5월 21일 동기회 창립총회에서 단 6명의 참가자로 출범식을 가졌던 기억을 반추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지난 6개월여 동안 분주히 뛰어다닌 이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이날 코모도호텔에서의 기념식은 팝 오페라 가수의 열창으로 막이 올랐다. 박기홍(55회) 동문이 사회를 맡았다. 졸업앨범과 동기야구선수 근황 영상 감상에 이어 55회 동기회장 장지훈 동문의 동기회기 입장과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가 진행됐다. 김대옥(29회) 총동창회장과 박종기(28회) 자문위원을 비롯, 28명의 내빈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 내년에 졸업 20주년을 맞는 56회 동기생 3명도 참석했다.

여섯 분의 은사가 소개됐다. 강동원(16회 동문) 성낙범 강석원 진영배 김태우 서희경 은사가 자리했다.

김 총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 총동창회장은 “삶의 무게로 힘들 때가 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다. 이 순간 여기서 충실히 살면 걱정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며 삶의 지혜를 전하고, “‘학교 후의 학교’라 할 수 있는 총동창회 활동은 봉사와 배려가 근간이다. 봉사와 배려를 쌓다보면 인격향상과 함께 밝은 미래가 온다. 인격 도야로 보다 밝은 미래, 보다 행복한 미래를 열자”고 말했다.

최영준(41회) 경미회 회장은 축사에

서 “서로 큰 힘이 되도록 사랑하고 이끌어 주자”면서 “이제 버젓한 총동창회 회원이 되었다. 가능한 조그마한 노력부터 하자. 밴드 가입, 동창회보 구독, 모교사랑기금 참여, 야구후원회 가입 등이다. 55회의 다이내믹한 힘을 느낀다. 멋진 앞날을 열어가자”고 말했다.

박종찬(25회) 고문과 롯데 자이언츠 선수 한동희(72회), 이대호(55회), 최준용(74회) 동문의 영상축하 메시지 상영, 이육한 55회 사무국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장 55회 동기회장은 인사말에서 “최악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처럼 행사를 가지게 돼 감사하다. 행사 준비하며 끈끈한 의리와 정을 경험했다. 경남중고 동문임이 자랑스롭다. 앞으로 동기회와 총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서 고액 후원 동문과 은사 선물 전달이 진행됐다. 은사를 대표하여 강동원 은사는 “재학 시절 기합을 많이 주었다. 사과한다”면서 “훌륭하게 성장한 여러분을 보고 긍지를 느낀다. 이것이 보람이다”라고 말했다.

55회 동기회는 이날 낮 경남고에 학교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한데 이어 이 자리서 전광렬 경남고 야구부 감독에게 야구부 발전기금 300만원(야구용품 구입)을 각각 전달했다.

케이프 커팅과 건배제의, 교가 제창으로 1부 행사를 마무리했다. 장 55회 동기회장은 ‘55회’ 제목 삼행시로 건배제를 했다. “‘5’-55회 동기 친구들아, ‘5’-오랜만이다, ‘회’-회포 진하게 한번 풀어보자!” 55회는 이날 다음날 새벽까지 진하게 2부 행사 축제의 밤을 보냈다.

55회 동기회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데 대해 ‘기적 같다’는 표현을 했다. 6명의 동기회 출범을 돌이켜 보면 그럴 만도 하다. 그만큼 선배들의



55회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장 전경.<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55회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에 참석한 은사들.



55회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축하 건배제의 모습.

큰 사랑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 55회 동기회장은 “55회가 받은 사랑이 후배들에게 ‘내리사랑’이 되도록,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는 이날 50만원의 격려금과 머그컵, 마스크, 배지 각 150개씩과 동창회보 축쇄판 등을 전달했다.

◇후원 내역(기수순)=△현금-박종찬(25회) 100만원, 박종기(28회) 20만원, 김대옥(29회) 100만원, 우영환 100만원, 한수열(이상 40회) 30만원, 이양걸 20만원, 최영준(이상 41회) 100만원, 박동

식(42회) 30만원, 43회 동기회 20만원, 조태성(45회) 100만원, 최원석(46회) 30만원, 정신(47회) 100만원, 김동현 10만원, 백광선(이상 50회) 10만원, 정유석(51회) 100만원, 김현진 10만원, 정상중(이상 52회) 10만원, 김권우 100만원, 박성영 20만원, 황종민(이상 53회) 100만원, 임길환(54회) 50만원, 54회 동기회 100만원, 경야회 50만원, 경미회 친목교류분과 30만원, 총동창회 50만원 △물품-한수열(40회) 상품권 2장(10만원권) 육한수(46회) 행사 축하 떡, 배준수(47회) 양주 12병, 정재우(50회) 2부 행사팀 섭외, 최우영(51회) 마스크 500장, 한중현(52회) 에어비앤비 숙박권 1장, 조중완(54회) 팝 오페라 가수 초청, 총동창회 머그컵 마스크 배지 각 150개 △쌀화환-이종휘(32회) 백창봉(41회) 신봉준(42회) 배봉건(44회) 권우일 조청래(이상 45회) 최진영(49회) 경미회·경미회 대외협력분과.



55회 졸업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참가자 기념사진 촬영.

맑은 물 흐르는 곳 정자 지은 선조의 여유 어디로...

송정천

옛말에 나라를 경영하는 근본은 산과 물을 다스리는 치산치수(治山治水)라 하였다. 많은 사람이 강과 하천 주변에서 산책이나 운동하는 것을 보면 치수의 덕이지 싶다. 그래서 노자는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으며,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그 공에는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라고 하면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라고 말했다. 공자도 물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니 덕(德)과 같으며 그 흐름은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하고 모가 나도 반드시 그 이치대로 순환하니 의(義)와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물은 막힘없이 흘러가니 도(道)와 같고, 가려할 때는 메아리처럼 빠르고 백 길이나 되는 계곡으로 떨어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용(勇)과 같다고 했다. 웅덩이는 채워서 평평하게 만드니 법(法)과 같고, 가득차면 평평하게 깎지 않으니 정(正)과 같으며 부드럽게 미세한 곳까지 이르기니 찰(察)과 같다 했다. 또한 발원해서는 동쪽에 이르니 지(志)와 같으며 나가고 들어감으로 만물이 그 깨끗함을 선택하니 선화(善化)와 같다, 라고 했다. 따라서 물의 덕이 이런 것이니 군자는 반드시 이것들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오수(汚水)를 순우리말로 ‘구정물’이라 하고, 더 더러우면 ‘구정물’이라고 한다. 윗물이 구정물이면 아랫물로 갈수록 냄새나는 구정물이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도 있다. 우리 조상들은 맑은 물이 흐르는 곳이면 송정(松亭)이라는 정자를 소나무 숲 사이에 지어 놓았다. 이런 마을이 엄청나게 많다. 송정천(松亭川)이 흐르는 송정마을에는 송정이 꼭 있었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 사이에서는 조선에 가면 송자(松字)를 주의하라는 말이 떠돌면서 송자가 붙은 지명에는 침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한 연유로 송정천이 강원도 평창과 이천(伊川·북한 지역), 경기도 용인, 경상도 거제와 함안, 김해와 문경, 전라도 곡성과 화순, 고창, 충청도 공주와 영동, 울산과 세종시 등 전국에 걸쳐서 현재까지도 똑같은 송정천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재미있다. 또 마을 앞 물가의 넓은 터에 서있는 노송(老松)은 오고가는 사람들의 쉼터로서 때로는 헤어집의 아쉬운 배웅 장소로도 이용되었기에 송별정자(送別亭子)라 불렀다.

부산의 하천, 이제와 오늘 ②

--‘숨쉬는 동천’ 대표 이용희(34회) 동문 기획탐방--



강서, 기장, 해운대에 같은 우리말 하천...전국적인 현상 ‘상선약수’라는 물의 ‘덕’ 본받고 삶의 지혜 얻은 수양처



해운대 소재 송정천.



강서 소재 송정천.



기장 소재 송정천.

오늘의 부산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난 엄청 발전한 대도시이다. 하지만 바다와 강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라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포지향(三抱之鄉)의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다. 특히 삼포지향 부산의 하천들 가운데는 우리말로 똑같은 이름의 ‘송정천’이 강서구 송정동, 기장군 송정리,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각각 흐르고 있다. 이들 세 곳의 송정천은 생태하천을 꿈꾸는 도심하천이자 모두가 지방하천이다.

부산의 하천 대부분은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원으로 인해서 숨쉬기가 힘들고 나아가서는 점점 더 숨이 가빠지는 듯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30년의 환경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기후변화, 종 다양성 손실, 물 부족 등 환경오염문제와 함께 이들의 영향에 대한 추세를 분석했다. 만약 새로운 정책과 방안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줄 환경과 자연기반들이 비가역적 위험성에 놓일 수 있다, 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부산의 송정천들은 하천법에 준거하

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정책기본법(환경상태의 조사 및 평가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시측정 및 수질, 수생태계 조사), 수질측정망 운영계획(환경부 고시) 등의 조사 근거에 따라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pH, DO, COD, SS, T-N, T-P)에 따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기준으로 몇 년 전의 수질등급 현황에서는 약간 좋음과 중음을 보여주었다.

강서구 송정동(松亭洞)은 바닷가 자연마을에 송림이 울창했었기에 유래된 송정마을로부터 지어진 이름인 듯하다. 송정동을 관통해서 흐르는 서낙동강수계의 송정천(松亭川)은 진해 보개산에서 발원하여 총 유로연장 10.4km, 유역면적 2.8km²을 가지나 부산권에는 하천연장 3.57km, 요개수연장(양안) 2.30km, 개수연장(양안) 0.50km, 미개수연장(좌안) 1.80km로 하구의 간석지가 매립되면서 하천의 유로가 연장되었다. 하구 쪽에는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가 조성되고 있다. 강서구 송정천 유역에는 송정초등학교, 녹산공단, 부산 신항만 등이

있다. 남해 바다로 흘러드는 이 하천은 유역에 녹산국가산업단지가 있어 공단의 수로로 취급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해운대구 송정동(松亭洞)은 해안가 포구 백사장 쪽으로 위치한 갯마을이 울창한 해송으로 인해서 불린 듯하다. 송정동을 관통해 흐르는 동부산수계의 송정천(松亭川)은 장산에서 발원해 하천구간의 기점이 기장 내리 651-1이고, 종점은 해운대 송정동 산52로 하천연장 4.7km, 요개수연장(양안) 8.05km, 개수연장(양안) 4.05km, 미개수연장(양안) 4.0km, 유역면적 17.0km²을 갖고 있다. 해운대구 송정천 유역에는 울산고속도로, 기장대로, 송정1호교, 동해남부선, 송정강변로, 국제외국인학교, 오시리아역, 갈포행복마을, 송정2호교, 송정항, 죽도공원, 송정해수욕장 등이 있다. 동해 바다로 흐르는 이 하천은 쇠백로, 청둥오리, 왜가리, 홍머리오리, 물병아리 및 천연기념물 수달 등이 서식하는 생태하천으로 변하면서 다양한 식생들이 번성하게끔 잘 가꾸어진 하천이다.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送亭里)는 송별정자의 송정자(送亭子)에서 송정마을로 불리게 된 자연마을인 듯하다. 송정저수지에서 발원하는 수영강수계의 송정천(送亭川)은 기점이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에서, 종점은 기장군 철마면 수영강 상류의 합류점까지 하천구간으로 하천연장 2.35km, 요개수연장(양안) 2.1km, 개수연장(양안) 3.67km, 유로면적 5.6km²이다. 기장군 송정천(送亭川) 유역에는 국방부 조병창인 대우S&T, 소산마을(소두방재), 조마실, 조리공원, 송정전통 재래시장, 송정리 안골못, 흥법사 등이 있다. 이 송정천은 선두구동의 수영강 상류 쪽에 흘러드는 하천이다. 송정천을 합류하는 수영강 상류 쪽에서부터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팔송정(八松亭)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어서 많은 자료들에서는 송정천(送亭川)을 송정천(松亭川)으로 혼용해 적고 있다.

부산의 세 송정천은 두 곳은 송정천(松亭川)이며, 한 곳은 송정천(送亭川)으로 표기해야 한다.

제3회 족구대회, 웃음폭탄 속 재미·우정 “활짝”

경미회 제3회 족구대회가 지난 10월 23일(토) 낮 금정산성 물레방아가든에서 개최됐다. 몇 차례 연기의 우여곡절 끝에 열린 잔치라 즐거움은 배가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경미회 회원 대부분이 참석했고,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과 박종찬(25회) 고문, 현응열(29회) 사무총장, 류명석(31회) 집행위부회장, 이종휘(32회) 용마골프회장, 이수환(37회) 동문,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 김병기 부산진·연제지구 사무국장, 윤원욱(이상 39회) 사무국장 등 여러 선배들이 내빈으로, 출전선수로 참석했다.

웃음폭탄이 쏟아진 열린 경기 후 염소불고기로 회식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자리서 경품 추첨을 가졌다. 정신(47회) 동문이 준비한 프로야구선수 사인볼 24개를 각 분과로 분배했다. 경미회는 이날 참가기념품으로 골프용장 우산을 선사했다.

◇시상 내역(금액은 상금)=△우승-사회공헌 B팀(50만원) △준우승-대외협력 B팀(30만원) △3위-친목교류 B팀·대외협력A팀(각 10만원) △최다참

가상-사회공헌분과(20만원) △응원상-미래발전분과·문화체육분과(각 10만원) △최다참가기수상-41회·45회(각 10만원).

◇찬조 내역(기수순·직책 생략)=총동창회 50만원, 박종찬(25회) 100만원, 김대욱(29회) 100만원, 류명석(31회) 20만원, 이종휘(32회) 20만원, 조용철(38회) 50만원, 박훈재 20만원, 배병훈 20만원, 배영진 20만원, 우영환 50만원, 임태영 20만원, 한수열(이상 40회) 10만원 상품권 1장, 41회 동기회 30만원, 김영철 50만원, 박철홍 20만원, 이양걸 해운대연가 5만원 상품권 10장, 전삼록 30만원, 최영준 100만원, 한창희 20만원, 황정후(이상 41회) 20만원, 박동식 30만원, 정용중(이상 42회) 이가한우 5만원권 6장, 강병규(43회) 10만원+막걸리 3박스, 탁정환(44회) 30만원, 구자삼 메로선물세트 5만원×6개, 김상수 20만원, 조태성(이상 45회) 건어물안주 30만원 상당, 정신(47회) 50만원, 사회공헌분과 굴 3박스+방울 토마토 2박스.



경미회 족구대회 개막식 기념촬영.<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제5회 당구대회서 신예 장지훈(55회) 동문 우승

제5회 경미회 당구대회가 지난 11월 24일(수) 오후 7시 총동창회관 내 KN당구장에서 열렸다. 우미옥에서 저녁식사 후 벌어진 이번 대회는 개인전으로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 신예 장지훈(55회) 동문이 예선전에서부터 결승전까지 월등한 기량으로 한결을 내달리면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결승전에서 15분 만에 경기를 끝내버릴 정도로 ‘숨은 고수’ 출현이었다. 준우승은 ‘운

좋은 사나이’ 전삼록(41회) 동문이 남은 개수차로 차지했다. 최다참석상은 문화체육분과에 돌아갔다.

이날 이원영(39회) 동문이 초대되어 멋진 당구실력을 보여주었다. 대회를 마치고 가마치 통닭집에서 토론과 찐한 뒤풀이를 가졌다.

◇찬조=이원영(39회) 2차 치맥 일체 비용, 우영환(40회) 30만원, 최영준(41회) 30만원.



경미회 당구대회 우승 장지훈 동문(앞줄 왼쪽) 시상 모습.



경미회 야구대회 출전팀이 경기 전 작전을 짜고 있다.

제2회 야구대회, 청명한 하늘처럼 날아올랐다

제2회 경미회 야구대회가 지난 11월 6일 낮 12시 기장현대차드림볼파크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선수들은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천연구장에서 마음껏 뛰고 쌓였던 스트레스를 깨끗이 풀었다. 경미회 야구단과 포원야구단(41회 야구단) 간의 경기가 정식 행사였지만, 승부보다는 함께 웃고 즐긴 친목의 시간이었다.

이날 경기에서 경미회의 14:7 승리를 견인한 선발투수 박형규(43회) 선수는 3이닝 1실점이라는 예상 밖의 완벽투를 보여주었고, 김정현(50회) 선수는 2루타 4개라는 폭발적 타격을 자랑했다.

홈런 레이스에서는 홈런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창오(45회) 선수가 룡기어를 기록하면서 홈런왕을 차지했다. 이벤트 경기로 치른 티볼경기(홀수기수 VS 짝수기수 대결)는 홀수기수가 4대1 승리했다.

시상식은 저녁 식사 장소인 용호동 소재 이가한우에서 가졌다. 2차 맥주자리에 박종찬(25회) 경미회 명예회장이 참석, 회원들을 격려하고 2차 비용 전액을 찬조해주었다.

◇시상 내역=▲승리팀 MVP : 박형규(43회·투수) 김정현(50회·타자) ▲패전팀 수훈선수 : 전삼록(41회) 동문 아들 전재원 ▲티볼 승리팀 MVP : 정신(47회) ▲티볼 패전팀 수훈선수 : 우영환(40회) ▲홈런왕(룡기어) : 손창오(45회) ▲최다참석분과 : 문화체육분과(8명 참석) ▲최다참석기수 : 52회(4명 참석-45회 4명 참석하였으나 후배 기수에게 양보).

◇찬조 내역=박종찬(25회) 2차 맥주 파티 비용(40만원), 우영환(40회) 50만원, 최영준(41회) 100만원, 김기봉(43회) 스포츠이온음료 2박스, 구자삼(45회) 50만원, 정신(47회) 100만원, 포원야구팀(41회) 50만원.



경미회 골프대회 시상식이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열렸다.<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제2회 친선골프대회 성료, 24골퍼 ‘환상 샷’

경미회 제2회 친선골프대회가 지난 11월 16일(화) 해운대비치골프앤리조트에서 열렸다.

경미회 각 분과 4명씩 5개조와 집행부+총동창회 1개조, 총 6개조 24명의 골퍼가 초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회를 마치고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시상식과 저녁식사를 가졌다. 식사 후 김대욱(29회) 총동창회장이 찬조한 2차 맥주파티가 벌어졌다.

◇시상 내역=△단체전-1위 문화체육분과(총 27타), 2위 대외협력분과(총 35

타), 3위 총동창회+집행부(총 38타) △개인 메달리스트-안병규(44회·78타) △개인 신페리오 우승-김대욱(29회·79타, 71.8점) △행운상-한수열(40회) △룡기스트-정재우(50회·286m) △니어리스트-최원석(46회·2.4m)

◇찬조 내역=총동창회 30만원, 박종찬(25회) 50만원, 김대욱(29회) 2차 맥주 파티(30만원), 배병훈 골프공 4더즌, 우영환 50만원, 임태영 20만원, 한수열(이상 40회) 10만원 상품권 2장, 최영준(41회) 50만원, 박동식(42회) 20만원, 구자삼(45회) 30만원.

‘동문선배 초청 직업강연회’, 경남고의 아름다운 자랑

이주형 전 경남고 교사 ‘진로 교육’ 기고

대학 진학에 쏠린 학교 교육환경에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지만, 발등의 불은 아니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면, 진로교육이 학생의 미래에 보다 더 가치 있는 훌륭한 교육기회가 아닐까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게 시대적 현주소이다. 지난 2019년 3월 경남고에 부임, 2년 반 동안 경남고 진로교육을 맡아 나름 알차게 진행해온 이주형 교사가 올해 8월말 정년퇴직했다. 그동안 이 교사가 펼친 진로교육 내용의 원고를 청탁했다. 진로 주제 박사논문 작성에도 활용되었다고 한다. 이 교사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 교직원 선생님들의 협조와 동참, 총동창회 모든 동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 지원 덕분에 있어서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다.

국회는 2015년에 진로교육의 숙원이었던 진로교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에 담긴 진로교육의 목적은 첫째,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둘째,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입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을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진로역량을 기르는 활동’으로, 진로상담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 활동 포함)’으로, 진로체험은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중심의 직업체험,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주형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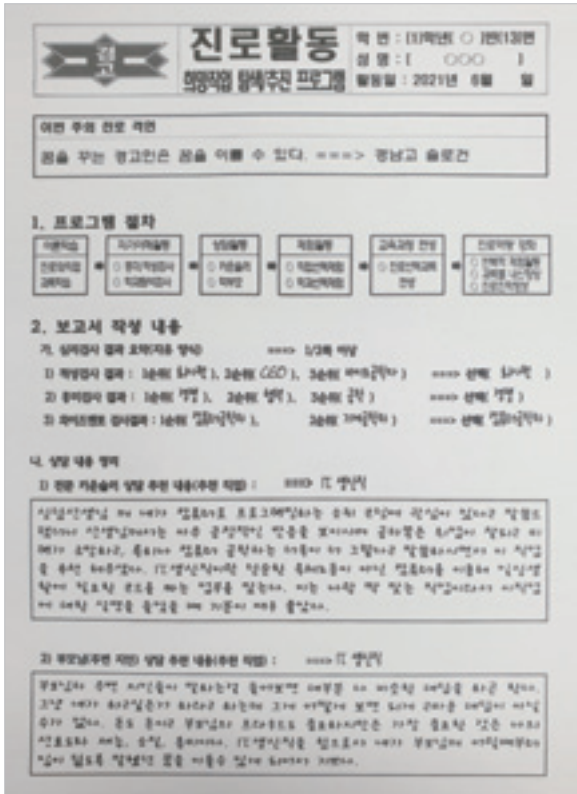
아울러 학계에서는 맞춤형 진로교육의 의미에 대하여 ‘개별 학생의 경력 경로를 설계하고, 순차적으로 교육경로를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로교육의 효과는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유발과 학습자세 확립, 내신성적 향상, 대학생·직장인으로서의 삶의 적응능력 향상, 창의적 역량의 형성’으로 내세웁니다.

1. 진로역량을 기르는 경남고 맞춤형 진로교육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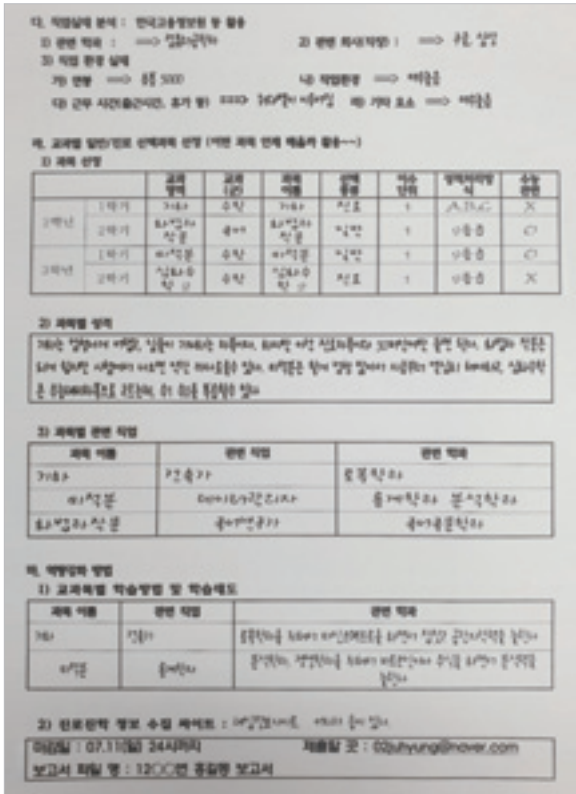
이 모형은 20여년 동안의 경험을 축적하여 경남고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단계는 ‘이론학습’입니다. 이론은 1학년 때 수업하여 진로탐색의 방향을 설정하고, 2학년과 3학년에서 다양한 체험을 활동하는 형태가 권장유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진로와 직업’ 과목으로 이론내용을 학습하여 체험활동의 방향을 파악하고 참여할 경

‘동문선배 초청 멘토-멘티 활동’ 구체적이고 실무적 효과 확대가 바람직 진로교육은 1학년 ‘파종’, 2학년 ‘비료’, 3학년 ‘결실’...교사 헌신 밑거름



맞춤형 진로교육 간편추진 보고서 앞면.



맞춤형 진로교육 간편추진 보고서 뒷면.

우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1학년 과정은 ‘논 같고 밭 갈아서, 씨뿌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경남고에 부임한 지난 2년간은 교과서 없이 3학년 학생을 지도하였습니다. 교과서도 없이 이론내용을 수업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으며, 마찰도 있었지만 3학년의 실정에 적합하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일부 정보가 빠른 학생들은 진로부에 찾아와서 기존 모형에 따른 진로 프로그램 운영을 부탁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학 입시에서 매우 만족하였고, 어떤 학생들은 인생설계에 대해서도 매우 고마워 했습니다.

금년에는 맞춤형 진로교육 모형을 1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압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학년의 ‘잡초 뽑고 비료 주며 키우는 과정’, 3학년의 ‘결실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경남고 모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활동으로 인해 잘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이해활동’입니다.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등의 공공기관 검사 6종류와 전공탐색검사, 진로탐색검사 등 사설기관 검사 4종류를 검사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통하여 자세하게 진단하는 셈입니다. 매년 1학기에 직업적 요소를 탐색하고 학습방법 및 진학지도에 활용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학과계열 선정검사는 학교수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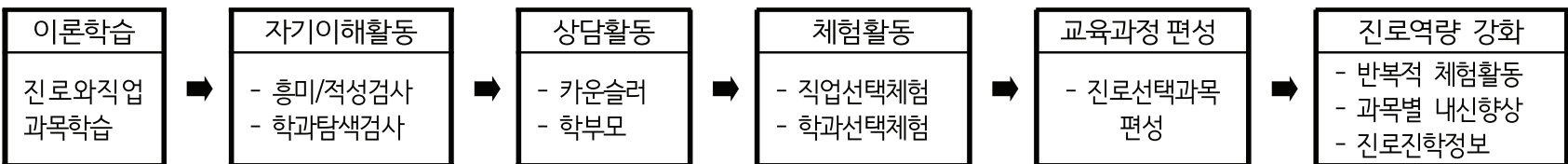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로, 주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운영했으며, 교과 및 전공 적합도, 학습환경 선호도, 계열 선호도 등을 검사하여 학과선택에 활용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상담활동’ 단계입니다. 담임선생님, 진로교사, 전문카운슬러가 학생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대면,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은 진로 및 진학 상담, 학습 및 학과선택 상담, 직업탐색상담 등 다양한 주제들입니다. 단기간에 많은 학생들이 상담할 경우에 외부 카운슬러를 초빙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1학년을 대상으로 7월 기말고사 이후 1:1 진로코칭 상담을 운영했습니다. 학급당 1명의 카운슬러가 배치되어 하루 3명씩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상담했습니다. 그동안의 상담을 보완하는 세밀한 상담으로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이 매우 컸고, 계속 추진해달라고 요청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직업탐색/학과탐색 활동’입니다. 직업탐색활동은 1, 2학년을 중심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관심 깊은 직업에 대하여 체험하는데, 수행과제는 수업시간에, 대외활동은 방학, 휴일 등에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들에 대한 진로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사 19면에 넘김>

■ 경남고 맞춤형 진로교육의 운영 모형



각 학급 카운슬러 배치, 하루 3명씩 2주 집중 상담 효과 커

〈기사 18면에서 받음〉

학과탐색활동은 2, 3학년을 중심으로 연2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 깊은 학과를 신청받아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한 후, 지정된 강의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대학 학과의 성격, 졸업 후의 진로 등 학과 전반에 대한 이해, 합격에 위한 성적 정도를 알아보는 등 학과 전반에 대하여 탐색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는 ‘교육과정 편성 지원’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은 꿈(희망직업) 실현을 위한 대학 강의를 위해 고등학교에서 먼저 배워야 할 과목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과목들을 개인에 적합하게 맞춤식으로 편성합니다. 이 활동을 위해 금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학과계열 선정검사’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은 ‘진로역량강화’입니다. 이 단계는 전 학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다양한 체험활동, 학과 교과목의 성적 향상, 희망 대학(학과)의 진로진학 정보 수집,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학설명회, 지쳐가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한 진로적언 탐색활동 등입니다. 부산시교육청, 지역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비롯하여 총동창회와 연계한 우리 학교만의 활동들도 활발하게 운영했습니다.

서울대 정철영 교수는 “맞춤형 진로교육은 개별 학생의 경력 경로를 설계하고, 순차적으로 교육경로를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유발과 학습자세 확립, 내신성적 향상, 대학생·직장인으로서의 삶의 적응능력 향상, 창의적 역량을 형성할 수 있다”고 효과를 제시합니다.

2. 총동창회와 함께 한 진로체험활동

먼저 ‘용마꿈발표대회’입니다.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5월 스승의 날 전후에 운영합니다. 자신의 꿈(희망직업)과 실천할 방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발표자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생들로 국산관 무대에서 발표하는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발표하지 않는 일반학생들은 발표를 듣고 어느 발표자가 잘 하는지를 기록하며 자신의 꿈을 구상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모든 참석 학생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발표학생뿐만 아니라 참관학생들도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진로 및 진학의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부산광역시장이 동문자격으로 참관하여 “경남고 학생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다니, 미래가 매우 기대된다”며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문선배 초청 직업강연회’입니다. 해마다 진행되는 활동으로서 동문 전체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진행됩니다.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교기념일에 운영하는데, 새내기 용마들에게 동문선배들이 직업인의 사례를 제시하고, 학창시절의 학습자세, 꿈을 꾸던 시절의 학교생활 모습 등에 대하여 다양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지정된 강의실에서 미리 기다리던 학생들은 선배 강사가 입장하면, “저희들은 경고 77기, 78기 학생들입니다. 선배님의 강연을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라며 큰 목소리로 인사드리고 강연을 들으며, 경고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바. 전체 소감(희망직업 탐색 · 추진 프로그램 수행 소감) : 1/2쪽 이상

저는 처음에 선생님께서 이 진로라는 프로그램에 전체적으로 설명하실 때 사실 약간의 실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까지 하지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다 알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검사 양이 많고 번 한 것들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지만 이것들을 다 합하고 분석하니 아주 저의 성격이 들어날 뿐만 아니라 제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잘 하는 지에 대해 잘 분석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것을 해서 그런지 진로를 한 번에 정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고 이제 어느것을 목표로 가야할지 알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그 길로 가는 것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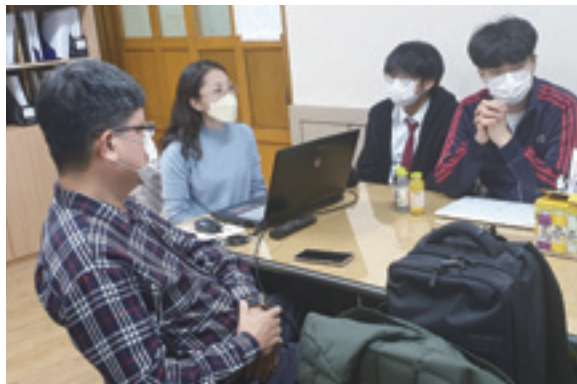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소감문 사례.



희망학생 대상 맞춤형 진로교육 설명.



1:1 진로코칭 상담 모습.



동문선배 멘토-멘티 활동.

자질 등을 배우며 길러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동문 선배의 삶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보기 드문 장면으로 경남고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동문선배 초청 멘토-멘티 활동’입니다. 이 단계는 심화된 체험활동의 내용입니다. 이 활동은 그동안 탐색하고 선택하며 추진했던 희망직업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인데, 동문직업인이 멘토로서, 학생이 멘티로서 서로 한 팀을 구성하는 활동입니다.

2학년 중 희망학생을 선발하여 관심직업을 조사하였고, 총동창회를 통하여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선배에게 도움을 부탁드렸습니다. 동창회 관계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서로 지원하는 분위기였으며, 다른 직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없느냐?”, “왜 학생들을 그렇게

적게 모집하느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항의성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진로부에서는 이 행사를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처음부터 폭넓게 진행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시범적으로 소규모로 시행해 보고,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명의 학생이 6개의 직업에 대하여 신청했으며, 구성된 팀은 6개였습니다. 각 팀에는 공통과제 3개, 개별과제 1개를 제시하여 팀별 사정에 적합하게 일정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진로부에서는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 팀 중에서 완벽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팀은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원인은 멘토와 멘티 간의 일정을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활동도 오랜 전통이 있던 동창회가 존재하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을 개선하여 다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 마치면서

교육에서의 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로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활동사진, 소감, ‘다함께 생각할 말들’을 화두로 셀러던트(Saladent; 셀러리맨과 스튜던트의 합성어로, 공부하는 직장인) 생활에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4. 제안 및 ‘다함께 생각할 말’

경남고에서 근무하면서, 앞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 및 동창회에 몇 가지 제안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학교와 동창회와의 긴밀한 체제 유지를 계속 부탁드립니다. 특히 ‘동문 멘토-멘티’는 다른 학교에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활동 유형입니다. 학생부종합면접에서는 아주 유리한 활동입니다. 더욱 발전시켜서 많은 학생들이 ‘동문 멘토-멘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로교육에 필요한 인력 지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진로전담교사의 업무는 매우 과중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의 진로교육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지원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재 경남고등학교에는 다른 과목의 개설에 따라 진로과목이 폐강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험활동의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이론교육이 선행될 것이라 강조합니다. 이론수업이 없을 경우, 목적성을 상실한 체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20면에 넘김〉

야구 이야기

‘무쇠팔’ 최동원(31회) 동문, 스크린으로 부활

1984년 한국시리즈 7차전 생생하게 기록
4승1패 ‘만화 같은 승리’로 야구전설 승화

“영화 ‘1984 최동원’을 보셨나요?”

‘불세출의 영웅’ 고(故) 최동원(31회)과 동시대를 살았음을 자랑으로 알고, 그의 전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경남중고 동문이라면, 그를 다시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 같다. ‘무쇠팔’ 최동원 동문이 스크린으로 부활했다.

영화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결로 손꼽히는 1984년 한국시리즈의 영웅 최동원 선수의 투혼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한국시리즈 7차전 열흘간의 기록을 오롯이 담았다. 감독 조은성, 주연 ‘무쇠팔’ 최동원이다. 그는 롯데 자이언츠와 삼성 라이온즈가 맞붙은 7차전에서 5경기에 등판, 4승(완봉승 1번, 완투승 2번, 구원승 1번) 1패(완투패)라는 ‘만화 같은 승리’를 연기했다.

KBO리그 40년 동안 한국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올린 투수는 최동원이 유일하다. 이 대기록은 불멸의 기록으로, 영화나 만화에서나 볼 법한 기록이다. 야구 팬들은 지금도 1984년의 가을야구를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극적인 가을야구로 평가하고 있다. 그 주인공 최동원은 야구팬 가슴에 박힌 ‘불멸의 영웅’이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 ‘무쇠팔’ 최동원. 그는 롯데 자이언츠의 상징

이었다. 현역 시절 8시즌 동안 통산 248경기에서 103승 74패 26세이브, 평균자책점 2.46을 기록했다. 81차례 완투 기록. 바로 야구사의 전설이다.

최동원은 인터뷰에서 “마, 이길 수 있는 게임은 전부 다 이기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불굴의 투지와 승리에 대한 갈망과 에이스의 책임감을 드러냈다. 투혼과 도전, 헌신과 희생의 ‘최동원 정신’의 표출이었다.

고 최동원의 10주기에 맞춰 나온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에는 1984년 최동원과 승부를 겨뤘던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과 최동원의 팀 동료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 강병철 감독까지 생생한 인터뷰 영상과 당시 미공개 영상 자료들이 소개된다.

“1984년 가을 뚜벅뚜벅 마운드로 걸어간 한 남자가 있었다”라는 부산 출신 배우 조진웅의 묵직한 내레이션을 마운드를 향한 철인(鐵人)의 걸음은 전설로 엮어졌다.

31회 동기생인 정용식 동문은 충동창회 밴드에 영화 본 소감을 올렸다. “당시 필름과 그 시절 야구 레전드 김용희, 김시진, 이만수, 강병철 감독이 출연하고... 그 시절 회상 하면서 무쇠팔이 코피 흘린, 한국시리즈



최동원 선수의 역투 모습.

살아있는 역사 뒷이야기 감동이었다”고 말했다.

많은 동문들이 최동원과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영화를 본 이들은 눈가에 이슬이 촉촉히 맺혔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명복을 빌면서...

‘송삼봉’ 송승준(53회) 동문, 마운드 떠나다

15년 롯데 생활 마감...“도움 준 분들 모두에 감사”
3연속 완봉승에 통상 109승 달성

‘영원한 송삼봉’. 롯데 자이언츠 베테랑 투수 송승준(53회) 동문이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났다. 지난 10월 30일 구단을 통해 공식 은퇴를 발표했다. 은퇴식은 갖지 않았다.

송 동문은 “롯데 자이언츠에서 오랜 기간 선수로 뛰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2007년 입단 첫 해부터 지금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팬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송 동문은 지난 시즌까지 총 338경기에 출전, 109승85패2홀드 평균자책점 4.48을 기록했다. 109승은 윤학길(117승) 전 퓨처스팀 감독에 이은 구단 역대 최다승 2위 기록이다. 리그 통상 100승 이상 달성한 투수는 38명뿐이다. 2009년에는 ‘3연속 완봉승’(‘송삼봉’ 닉네임의 탄생)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송 동문의 진가는 기록이 증언하고 있다.

마운드에서 투쟁심 넘치는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던 송 동문은 “비록 나는 우승을 하지 못하고 떠나지만 후배들을 보니 롯데의 우승이 멀지 않은 것 같



송승준 투수.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감독님들 덕분에 좋은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누구보다 야구선수 송승준을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조용철(38회) 경야회 회장은 “오로지 야구 하나만 보고 달려왔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후배들을 이끌어온 당신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제2의 인생도 멋지게 성공하리라 믿는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경남중고 야구후원회 출범 소식에 송 동문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배들을 위해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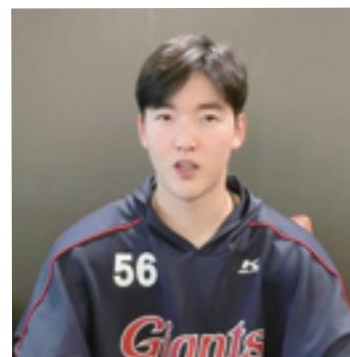
다. 끝까지 롯데 자이언츠를 많이 응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15년의 선수생활을 마감한 송 동문은 “코칭 스태프, 프런트 모든 분들이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고생한다. 이 분들의 노고 덕분에 송승준이 존재한다. 야구보다 인성이

최준용(74회) 동문, 빛났다

‘일구상’ ‘한은회’ 거푸 신인상
KBO 신인왕 놓쳐 아쉬움도

롯데 자이언츠 핵심 불펜 우완 투수 최준용(74회·사진) 동문이 지난 10월 25일과 26일 이틀 연속으로 ‘일구상’(한국 프로야구 OB 모임)과 ‘한은회’(한



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로부터 신인상을 받았다.

2020년 롯데에 입단한 최 동문은 올시즌 44경기에 등판, 4승 2패 1세이브 20홀드, 평균자책점 2.85를 기록했다. 평균 구속 146.1km 강속구와 뛰어난 제구력을 앞세워 롯데 필승조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최 동문의 활약은 하반기에 눈부셨다. KBO 최고 수준이었다. 후반기 29경기에서 2승 1패 1세이브 13홀드, 평균자책점 1.86으로 호투하며 존재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1992년 염종석 이후 첫 롯데 출신 KBO 신인왕까지 유력했던 최 동문은 국가대표 신인 투수 이의리(KIA 타이거즈)에게 그 영광을 돌려야 했다.

최 동문은 “아쉽지만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타이틀 홀더(title holder)로 KBO 시상식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 시즌 하반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3실점 한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실수를 교훈 삼아 내년 시즌 어떤 보직에서든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최 동문은 각오를 밝혔다.

<기사 19면에서 받음>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진로와 직업 개설비율은 50% 정도입니다만, 생애설계를 잘 하여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진로과목이 다시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뉴스에 나온 내용을 ‘다함께 생각하기’로 올리면서, ‘진로=진학’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생애설계’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 문헌

교육부 (2015). 진로교육법

유현실 외 (2020).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실제. 서울, (주) 화평론아카데미.

정철영 (2015).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진로교육연구 제28권 3호.

조동현 외 (2019). 진로교육학개론. 파주, 교육과학사.

경남고, 2021현대자동차배 고교야구 우승



경남고 야구부가 지난 11월 23일 기장 현대자동차드림볼파크에서 열린 2021현대자동차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에서 부산고를 6대5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현대자동차배 고교야구대회는 부산·경남·울산권 우수학교 10개 팀을 초청하여 자웅을 다투는 대회이다. 결승전에 앞선 준결승에서는 울산

공고를 7대0 콜드게임으로 이겼다. 예선에서는 개성고에 13대6 콜드게임으로 승리했다.

1, 2학년 학생만 참가한 이번 대회에 우승함으로써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내년에는 더 큰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를 갖게 했다.



‘2021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공모전’에서 우수상 김용빈 군(오른쪽)과 장려상 정원우 군이 상장을 들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NIE 패스포트 공모전 수상

지난 11월 29일 한국신문협회가 주최한 ‘2021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NIE 패스포트 공모전’에서 경남고 김용빈(2학년) 군이 우수상, 정원우(2학년) 군이 장려상에 각각 선정되어 상장과 부상을 받았다. 부상으로 우수상은 30만원, 장려상은 5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NIE 패스포트’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참여, 인권과 평화, 연대와 정의

등과 관련된 15개의 활동 과제를 신문 지면이나 신문사 사이트에서 뉴스 정보를 찾아 수행하는 워크북이다.

두 학생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신문을 활용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개념 및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의 ‘민주주의 정원’을 건강하게 가꿔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와 같은 활동 내용을 워크북에 정리한 후 공모전에 참가하였다.

총동창회, 경남중고에 방역마스크 선물

재학생·교직원용 총 2,220개 전달

총동창회는 지난 11월 4일(목) 경남중과 경남고 재학생 및 교직원에게 KF94보다 방역기능이 우수한 CE(유럽 방역품질 기준-41회 추교용 동문 설계) 코로나 방역마스크를 선물했다. 경남중(사진 왼쪽) 1,040개, 경남고

1,180개 등 총 2,220개이다. 이날 경남고 전달식에서 현응열(29회) 사무총장과 윤원욱(39회) 사무국장이 참석, 3학년 후배들의 수능(11월 17일) 대박을 기원하는 동문 선배들의 바람을 마스크와 함께 전달했다.



자녀와 함께하는 보드게임 장면.

경남중 학부모 교육과정, 소통과 협력 이끌어

경남중(교장 김미정)은 ‘2021학년도 학부모 교육과정 참여 사업’, ‘학부모 씨앗동아리’, ‘학부모 독서모임’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였다.

경남중은 올해 ‘2021년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을 두 차례 열었다. 지난 10월 22일 ‘자녀와 함께하는 보드게임’, 11월 24일 ‘향기와 함께하는 꽃

차테라피’라는 주제의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12월에는 ‘학부모 취미교실’로 댄스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5~11월 시행된 ‘학부모 씨앗동아리’의 손뜨개DIY 활동은 학부모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였다. ‘학부모 독서모임’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도마공예’ ‘그림책 테라피’ ‘캘리그래피’ 수업을 가졌다.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1학년 루지 체험.



2학년 기장 아홉산숲 체험.

경남중, 학년별 체험학습 실시

경남중(학교장 김미정)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정서 순화를 통해 학교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려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학년별로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지난 11월 11일 교내 진로체험의 날 운영을 비롯, 학년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11월 한달 동안 기장 아홉산숲 체험, 해운대 수목원 탐방, 기장 스카이라인 루지 체험, 해운대 아쿠아리움 체험, 송정 블루라인 파크 해변열차 및 스카이캡슐 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학습은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등 위축된 학생들의 심신을 위로

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과 단체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 학생들에게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안겨주었다.

체험학습 비용 또한 전액 교육청 지원으로 이루어져 학부모들의 부담을 한층 줄여주었다. 경남중에서는 12월 17일 또 한 번의 현장체험학습(3학년 양산 에텐벨리 루지와 서바이벌 체험, 2학년 가야테마파크 체험, 1학년 소체육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키우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더욱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경연회(10회) = 이사회

지난 10월 2일(토) 오후 1시 담양 추어탕 식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결의 사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너무 증가하여 가을 야유회 가는 것은 취소하기로 하였고, 연말 정기총회 개최 여부는 11월 말경에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다. 차기 경연회 회장은 황정조 동문이 맡아서 하기로 전원 일치로 결정되었다.

참석자: 방일호 손 정 이계창 이병철 정상수 추인영 황정조

15회 화친회 = 월례회

지난 11월 9일(화) 화친회(회장 박찬호) 제311회 모임을 서면 정월보쌈에서 가졌다.

참석자: 김정길 김종태 김판열 박찬호 최욱

17회 산악회 = 천성산 용소마을 만수동 산행



가을이 가기 전에 단풍산행으로 가을철에 자주 들리던 천성산 용소마을 만수동을 찾았다. 지난 11월 14일(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2호선 종점 양산역에 모였다. 버스를 기다려 신전 용소마을에 거의 11시에 도착, 산행을 시작했다.

추수가 거의 끝난 마을 뒷밭을 지나고 계곡을 오르면서 가볍게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오르던 다리 움직임과 판이하게 다름에 격세지감을 느꼈다. 여러 차례 계곡을 가로지르고, 미끄러운 낙엽 바위 길을 조심스럽게 오르면서 약간 때가 지난 주위 단풍들이 가을 햇살에 은은하게 반긴다.

이건우 군이 준비해온 김밥으로 허출함을 때우고, 내원사 위 능선 임도에 올라 능선 따라 하산, 용소마을 원위치로 산행을 마쳤다. 범어사 앞에서 치맥 한 잔을 시원하게 넘기고 산행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참석자: 김종국 박신도 박인사 박정홍 송유근 이견우 하영수

19회 재경산악회 = 용마산 산행



지난 11월 21일(일) 11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긴 고랑 버스종점~계곡갯길~주능선~용마산 정상~용마산제4보루~제5보루~사가정공원~전철7호선 사가정역까지 산행을 다녀왔다. 이번 산행거리 4.0km, 산행시간 2시간 35분 소요.

참석자: 문찬 인선 상만 유홍 경래 문환 용환 정덕철원 태진 순창

23산우회 = 설악산 산행

지난 10월 22(금)~24일(일) 이박삼일간 12명의 동기가 모여 한계령, 주전골, 공룡능선, 토왕성폭포 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김덕규 김영기 김현구 문주열 박수갑 박재완 송충송 안호창 오윤안 이상운 이순 이승국

23당구회 = 친선 당구대회



지난 10월 27일(수) 범일동 스카이 당구장에서 20명의 동기가 모인 가운데 23당구회 (회장 김기룡) 3/4분기 친선 당구대회를 가졌다.

우승 김인홍, 준우승 박영창, 3등 박무열·안병화 동기가 각각 차지했다.

패자조 우승은 안호창, 준우승 김태홍 동기가 차지했다. 또 황원태 동기가 하이런상(7개)을 받았다.

24회 산우애 = 10월 정기산행



지난 10월 2일(토) 어린이대공원 입구~구민의 숲~만덕고개~케이블카 탑승~금강공원 구간으로 10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참석자: 김도현 김인구 손세영 안형수 장수현 장현동 정영환 조재진 태창업 황규선



지난 11월 6일(토) 신불산 자연휴양림 입구~파래소폭포~상단지구~죽림굴~간월재~임도~사슴목장 구간으로 11월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산행을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양산 국화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참석자: 곽두희 구자웅 김도현 김성득 김인구 김인철 박해성 배재일 손세영 안태인 안형수 장수현 정영환 조재진 최승국 태창업 황규선

25회 산우회 = 11월 정기산행



덕형리그, 경남고 야구부 2명에 장학금 김민수, 안민성 선수에 연 240만원 지원

경남중고 덕형리그 야구연맹(회장 이문열·29회)은 지난 10월 7일 경남고 교장실에서 2021년 덕형리그 야구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학금 수혜자는 3학년 김민수(사진왼쪽), 안민성(사진오른쪽) 선수이다.

덕형리그에서는 매년 경남고 야구부 선수 2명에 게 학기당 120만원씩, 연 24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장학금 지급 시기가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백영선 교장, 전광렬(44회) 야구부 감독, 김경곤(38회) 덕형리그 사무국장, 강훈(41회) 경기운영이사가 참석했다.



지난 11월 14일(일)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정기산행을 딱 1년 만에 가졌다. 2021년 첫 산행이기도 한 이날 범어사에서 금정산 장군봉(737)~갑오봉~범어사입구 코스를 올랐다. 약 5시간 소요된 힘든 산행이었다.

참석자: 김태선 노태호 박문갑 서보민 여성조 옥동훈 이동석 이창훈 이태근 탁준길 황근태

27산우회 = 이기대 해파랑길 산책



지난 10월 10일(일) 가을날 치곤 좀 더운 날씨에 땀 좀 흘리며 풍경 좋은 이기대 산책길을 2시간 정도 걸었다. 오륙도 해맞이동산 어귀 전망대에서 이종찬 고문이 시원한 아이스계기를 제공했다. 점심식사 후 장자산 정상까지 갔다. 용호동 할매 팔빙수 집에서 시원하고 달콤한 팔빙수를 장기남 고문이 제공하여 이리저리 잘 먹었다. 헤어지기 섭섭한지 2차팀은 이상열 회원이 합세하여 윤지한 차기 산우회 회장 예정자와 막걸리 찌집집으로 갔다. 즐거운 산책이었다.

참석자: 김재섭 김지원 박현호 방문성 백민호 변재국 윤지한 이상열 이성득 이인규 이종찬 장기남 홍종만

28산우회 = 영남알프스 답사



<기사 23면에 넘김>

충동창회 미래 견인할 새 동력 'K청마회' 창립

50~59회 회원 확보, 경남고 갓 졸업생까지 참여 유도
역량 있는 젊은 동문 발굴, 유대 갖고 소통하며 지원 계획

정재우(50회) 동문 초대회장 맡아

20년 후 경남중고 100년 역사의 주역이 될 패기찬 젊은 용마들이 뭉쳤다. 모교 경남중고와 충동창회의 미래를 경미회와 더불어 견인해 나갈 새로운 동력의 등장이다. 50회 기수 이후부터 올해 경남고 졸업기수인 76회까지 아우르는 'K청마회'가 창립되었다. 지난 10월 20일 오후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K청마회 창립식이 열렸다. 역량 있는 젊은 동문들을 발굴해 관계를 맺고 꾸준히 소통하여, 충동창회의 앞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모교 졸업 후 20년째에 홈커밍데이를 개최하는 현재 실정으로는 40세 이하의 동문들이 동창회에서 활약할 무대가 없다. 그동안 졸업20주년 홈커밍데이를 갖기 이전 기수에 대해 충동창회는 거의 나 몰라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력이 없기도 했다. K청마회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임하고 나섰다.

충동창회의 활성화와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청마회 초대회장은 정재우(50회·(주)S&W 상무이사) 동문이 맡았다. 임기 2년. 정 회장은 "모교 졸업 이후 기수부터 새내기들의 안정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훌륭한 선배들과 교우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생각 중이다. 이미 안전화 되어

있는 친구들은 동문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도 한다"며 충동창회가 더욱 탄탄하고 미래가 밝은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는 게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50회부터 59회까지 각 기수에서 1명씩이라도 참여토록하고 그 이후 기수부터 막 졸업한 기수까지 수문해서 회원가입을 권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50회부터 55회까지는 경미회 회원이기도 한 K청마회는 경미회와는 별도의 조직으로서 서로 얼마든지 윈윈

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K청마회는 실제 지난 4월에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이번에 정식 창립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현재 22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K청마회는 졸업생 1명을 선발, 장학금을 수여하는 제도를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식에는 김대욱(29회) 충동창회장, 박종찬(25회) 고문, 박종기(28회) 동기회장 겸 모교80년사 편집위원, 현응열(29회) 사무총장, 윤원욱(39회) 사무국장, 최영준(41회) 경미회 회장 등 다수의 선배 동문들이 참석, 장도를 축하하며 격려했다.

◇K청마회 회원=정재우(회장) 김정현 구원모(이상 50회) 정유석(수석부회장) 최우영(이상 51회) 김지운(부회장) 김현진 김민수 김민철 한중현(이상 52회) 김권우 이원준 우재준(사무국장)(이상 53회) 조중완 정준섭 임길환 고지현(이상 54회) 장지훈(홍보국장) 이육한(이상 55회) 장재환 김경모(이상 56회) 김성수(59회)

◇찬조 내역(직책 생략)=충동창회 50만원, 박종기 30만원, 최영준 30만원, 정용중(42회) 10만원+식사권(10만원·김성수 당첨), 정재우 50만원, 구원모 30만원, *박종찬 고문 2차 맥주자리 찬조



'K청마회' 창립식이 지난 10월 20일 오후 용호동 이가한우에서 열렸다. <사진=윤원욱(39회) 영상편집위원>

<기사 22면에서 받음>

28산우회(회장 김정유)는 영남알프스를 정복하기로 하고 10월에 우선 2개 봉 답사를 시작했다. 10월 10일(일) 오전 8시 해운대 동백역에서 만나, 2대의 승용차로 이동하여 9시 30분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현산(1,034m)과 경북 청도군 문복산(1,015m)을 6시간 15분 만에 전원이 무사히 완주했다.

회원들은 하루에 2개의 산을 넘나드는 강행군에 다리의 뻘근함도 즐거움으로 간직하며, 하산 후 해운대로 돌아와 얼큰한 해물탕과 소주 한 잔으로 산행의 피로를 씻어냈다.

참석자 : 김이청 김정유 여인남 옥상곤 이인재 최연욱 허남식 정복년(산행가이드)



28산우회는 10월에 이어 영남알프스 3번째 봉을 등반했다. 11월 14일(일) (이동은 같은 방식) 9시 30분부터 석남터널 입구에서 등반을 시작했다. 출발 후 2시간쯤 가지산(1,240m 경남 울주군)에 도착해 정상 근처에서 중식을 나누고, 일부는 오후 2시 20분경 하산하여 하산주를 즐기는 사이에 일부는 능동산까지 답사하고 1시간 뒤에 합류했다. 7시간의 산행을 완주한 산우회원들은 석남터널 입구에서 전원 무사함을 확인한 후 귀가했다.

참석자 : 김이청 김정유 박재훈 옥상곤 이인재

이종태 최연욱 정복년(산행가이드)

28당구회 = 월례회



28당구회(회장 조광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을 자제하다가 지난 11월 11일(목) 354일 만에 수영구 남천당구클럽에서 8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모처럼의 월례회를 가진 후 뒤풀이를 하며 함께 반가움을 나눴다.

참석자 : 강용수 김명보 노영현 박영규 이만재 이철행 정백수 조광제 국승규

28회 울산지역 동기회 = 2년 만의 모임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28회 동기들이 권기택 동기의 주선으로 11월 9일(화) 울산 공업탑 복개전 희락북국에서 거의 2년 만에 모임을 가지고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우애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모임은 5명이 참석했다. 울산지역 28회 동기생

은 약 12~13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석자 : 권기택 김옥성 배명철 이양훈 하재근

30산악회 = 제944차 정기산행 및 송년회



지난 11월 28일(일) 7명의 동기가 모여 장자산으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산행 후 이가한우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동기회에서 우홍제 총무가 문장호 회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참석자 : 권택술 김우삼 김인섭 김종진 문장호 박정태 서민석 왕순모 우홍제 유창열 이상수 이원용 정용하 천성일

33회 동기회 = 회장단과 고문단 모임



지난 11월 27일(토) 오후 6시 동기회 회장단과 고문단(전직 회장 역임, 12명중 5명 참석)이 향후 동기회 발전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자 서면 일신초밥에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기사 24면에 넘김>

동기회·동호회 및 직능단체

〈기사 23면에서 받음〉

참석자 : 김윤성 박근보 박태종 백수현 송종현 이동근 이윤조 주기훈

36회 울산동기회 = 2차 정례회



지난 11월 22일(월) 오후 6시 울산 남구 옥동 '결벽쇠 숯불구이' 식당에서 2021년 2차 정례회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박성만 현 회장의 임기를 1년 연장, 유임시켰다. 옷담백숙 요리를 푸짐하게 즐긴 가운데, 1차와 2차 경비 전액을 이원석 동문이 쾌척했다.

참석자: 강태원 김진한 박성만 박철종 이원석 정윤희 제갈재환 이현(44회)

49회 동기회 = 번개모임



코로나 이슈로 자주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레이크 사이드CC에서 '번개'로 라운딩 하였다.

참석자 : 박재홍 이충현 전선우 최유탄

52회 동기회 = 집행부 모임



지난 11월 3일(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중에 동기회 연말모임을 기획하고자 52회 집행부 모임을 사상에 위치한 '야끼짬(54회 조중완 동문 운영)'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 정신(47회) 동문과 김영빈, 임길환(이상 54회) 동문이 합류했고, 이옥한 55회 사무국장이 홈커밍데이(11월 27일) 홍보차 들렀다. 52회 집행부 모임으로 시작되었다가 미니 동창회 모임이 되었다. 1차 식사는 정신(47회) 동문이, 2차 맥주는 허근영(52회 부회장)이 찬조했다.

참석자 : 정신(47회) 김지은 김현진 정상중 한중현 허근영(이상 52회) 김영빈 임길환(이상 54회) 이옥한(55회).

구덕산우회 = 금정산 야영산행

지난 10월의 마지막 주말 구덕산우회(회장 서영대:28회)는 금정산 장군봉 아래 기막힌 캠프사이트에서 오랜만에 야영산행을 즐겼다. 19회부터 44회에 이르는 회원 12명이 참가했다. 좋은 술, 안주와 함께 선 후배간 정담을 나누며 익어가는 가을정취를 제대로 만끽하였다. 야영장비와 먹거리 무게가 만만찮았지

최연욱(28회) 동문, 부산미술대전 한문 특선 부인과 함께 '동반 특선 기쁨'도

최연욱(28회) 동문이 부산시와 사단법인 부산미술협회가 주최하는 '제47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에서 한문 부문 특선에 입상했다. 이번 대전에서 부인 이은남씨와 나란히 특선에 입상해 기쁨이 배가되었다.

최 동문은 부경대 교수로 지난해 정년퇴직 후 해운대에서 '호연한자교습소'를 열어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공인훈장1급의 한자한문 전문지도사

인 최 동문은 지난 4월 6일 부산일보사가 주최한 제41회 전국서도민전의 행초서 부문에서 특선을 수상하기도 했다.

호연한자교습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벽산2차아파트상가306호
(☎010-5618-1633)

〈글 박종기(28회) 편집위원〉

당(唐)의 시인 왕유(王維)의 시 '중남별업'앞에 선 최연욱 동문.



참석자 : 김광철 김기산 배성만 서상호 신성찬 이영희 조영철

현대차 경남고 동문회 = 정년퇴직자 축하모임



지난 12월 1일(수) 오후 6시 울산 외식명가 삼산정에서 현대차 정년퇴직 예정 동문(정인영:32회, 김상갑, 김현범, 윤병욱, 천대용:이상 34회)에게 퇴직 기념패와 기념 금일봉을 전달했다.

참석자: 정인영(32회) 김상갑 김현범 윤병욱(이상 34회) 이효성(35회) 정성훈(38회) 진조석(39회) 유종아(40회) 김상조(52회) 김근재(56회) 정류환(61회)

재애틀란타 동창회 = 송년모임



재미 애틀란타 동창회 송년모임을 지난 12월 4일(토) 둘루스에 있는 청담 한식당에서 가졌다. 총 9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후라! 경고'를 외치고 모임을 마무리했다.

참석자 : 박영원(17회) 박동철 이윤남(21회) 김우갑(26회) 권건오 정종우(32회) 김용민(33회) 서동욱(37회) 김대형(44회)

—〈알림〉—

총동창회 사무국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심민희 씨가 지난 11월 20일자로 새 일터를 찾아 퇴직하였습니다. 새 얼굴 이지인 씨가 사무국원으로 합류, 근무 중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동창회보 제437호 6면 사진설명 중 '釜山制二公立'은 '釜山第二公立'의 오키입니다.

21면 '요즘 어떻게?'란에서 24회 진병건 동문의 모친상 기사 중 '결혼'은 '발인'의 오키입니다.

해량바랍니다.



만 평균연령 67세 대원들이 적절히 나눠 짙어진 배낭이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은 즐거운 산행길이었다.

참석자 : 이창흠(19회) 김대원(20회) 안형수 유홍석(이상 24회) 김영출 서영대 이종태(28회) 서민석(30회) 남기태(31회) 윤태환(37회) 이승철(44회) 이종철(명예20회).

경불회=1년 만의 법회



경남중고동문불자회(경불회·회장 정영천(21회))가 지난 11월 20일(토) 오후 총동창회관 6층 강당에서 1년 만에 법회를 가졌다. 하동 신월정사에 주석 중인 자공스님(22회 동문)을 법사로 초빙했다. 이날 참석자에게 수안스님의 2022년 선회달력이 전달됐다.

통영지역 = 가을 야유회 및 월례회



통영지역동문회(회장 이영화:28회)는 지난 10월 17일(일) 동문 6명이 함안 일대에서 가을 야유회를 가졌다. 말이산고분군, 입곡군립공원, 무진정을 여유롭게 둘러보았다.

참석자 : 김광철 김기산 김동희 서상호 신성찬 주승진
지난 11월 3일(수) 7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월례회와 서상호(27회) 동문 송별연을 신성찬(25회) 동문 자택에서 겸하였다. 이 자리에서 통영에서 약 30년간 교직에 몸담고, 퇴직 후 서울로 이주해 가는 서 동문에게 송별의 뜻을 담아 이 회장이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요즘 어떻게?

<17회>

△김종국 = 딸 자연양 11월 21일(일) 낮 12시 30분 W웨딩 더에스 컨벤션홀 1층에서 결혼. △박영두 = 모친상. 10월 31일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19회>

△김일천 = 모친상. 10월 25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재열 = 모친상. 11월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황성진 = 차남 동기군 10월 23일(토) 오후 5시 이라운지 서울대점 1층 단독홀에서 결혼.

<20회>

△박용덕 = 부인상. 10월 30일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김해)에서 발인. △박지오 = 「2021 한국구상대제전」 개인 전시회 참여. 11월 9~13일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A4 부스). △심영욱 = 빙부상. 10월 28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상진 = 아들 10월 23일(토) 오후 6시30분 아모리스 역삼 1층 아모리스홀에서 결혼. △이종열 = 장녀 11월 6일(토) 낮 12시 코리아나 호텔(서울) 다이아몬드홀에서 결혼. △정승창 = 사무소 이전.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86번길 9, 303호(초량동, 녹원빌딩) 유럽건축사사무소 소장. △탁성식 = 장녀 11월 6일(토) 오후 3시 남산골 한옥마을 민씨가옥(서울)에서 결혼.

<23회>

△김주찬 = 장남 11월 27일(토) 오후 2시 해운대 팔레드 시즈 B1/노플레스홀에서 결혼. △방경부 = 아들 10월 17일(일) 오후 3시 티케이호텔(서울 서초구)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결혼. △정갑윤 = 12월 14일(화) 오후 2시 울산문수체육관에서 「좋은 이웃 정갑윤입니다」 출판기념회 개최.

<24회>

△김성득 = 빙부상. 11월 12일 언양새울산보람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용욱 = 모친상. 11월 22일 서울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손성호 = 차녀 11월 6일(토) 해운대센텀호텔 드블랑홀에서 결혼. △원희광 = 장남 11월 14일(일) 서울 라비돌웨딩 강남 2층 오펜홀에서 결혼. △이전제 =

차남 11월 27일(토) 서울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결혼. △정영석 = 모친상. 10월 13일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최동우 = 부인상. 11월 17일 동의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하석봉 = 아들 10월 23일(토) 서울 군인공제회관 앰플러스웨딩 3층 다운홀에서 결혼. △하성기 = 장남 11월 20일(토) 서울 Park Hyatt Hotel 3층 The Salon에서 결혼.

<25회>

△최동하 = 모친상. 10월 16일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예종복 = 아들 10월 16일(토) 서울 베뉴지웨딩 2층 그랜드클래식홀에서 결혼.

<26회>

△권종욱 = 차녀 지은양 12월 11일(토) 오후 6시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로즈&카네이션 룸에서 결혼. △김기표 = 아들 범수군 11월 21일(일) 낮 12시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2층 샴페인홀에서 결혼. △설광룡 = 「2021년 제4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구상부문 입상. (작품명 : 을숙도 추경). △전강석 = 빙모상. 11월 11일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정수진 = 아들 상현군 12월 11일(토) 오후 5시 서울 더 청담 2층 노블레스홀에서 결혼. △함재우 = 모친상. 11월 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27회>

△김강호 = 빙모상. 10월 22일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수인 = 빙모상. 10월 11일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승준 = 빙모상. 11월 13일 수원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전창민 = 차녀 명현양 11월 7일(일) 오전 11시 센텀 사이언스파크 4층 더하우스홀에서 결혼.

<28회>

△김승덕 = 모친상. 9월 28일 서울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노태욱 = 빙모상. 11월 7일 경남 마산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백영호 = 차녀 승혜양 11월 20일(토) 부산 범일동 사학연금S웨딩홀에서 결혼. △이하백 = 모친상. 11월 4일 부산대 양산병원 장

례식장에서 발인.

<30회>

△김계형 = 모친상. 11월 1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재중 = 차남 참군 12월 4(토) 낮 12시 서울 천주교 한강성당에서 결혼. △김창훈 = 모친상. 11월 5일 부산광혜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현태 = 「코마린 2021」 국제조선해양기자재 전시회 참가. 10월 19~22일 부산벡스코(제1전시장 부스1D13). △김홍수 = 장남 성훈군 11월 13일(토) 오후 2시 서울 상록아트홀 5층 아트홀에서 결혼. △박동규 = 빙모상. 11월 27일 삼성 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모철 = 부친상. 11월 7일 동아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오섬훈 = 빙모상. 10월 31일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오정균 = 빙모상. 11월 6일 인천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이병구 = 장녀 주희양 11월 20일(토) 오후 1시 웨스트조선 부산 1층 그랜드볼룸(대연회장)에서 결혼. △이인길 = 장남 윤규군 11월 13일(토) 오전 11시 30분 서울 아모리스 역삼 GS타워 1층에서 결혼. △이학수 = 모친상. 11월 11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조승환 = 「이레의원」 암 요양병원 진료중. 양산 물금읍 증산역로 149 3층. tel.055-387-1012 △최진곤 = 빙부상. 10월 26일 울산시티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함주혁 = 장남 동엽군 11월 21일(일) 낮 12시 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에서 결혼. △황규태 = 모친상. 11월 8일 부산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1회>

△서태교 = 아들 보성군 10월 17일(일) 낮 12시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결혼. △성중경 = 딸 민선양 11월 21일(일) 오후 3시30분 서울 더베일리하우스 삼성에서 결혼. △최재식 = 차녀 혜선양 10월 30일(토) 낮 11시 조방앞 W웨딩시티에서 결혼.

<32회>

△김태홍 = 아들 11월 13일(토) W스퀘어웨딩홀 3층 갤러리홀에서 결혼. △박우상 = 아들 10월 10일(일) 낮 12시 30분 롯데호텔잠실 BIF 사파이어볼룸

부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용찬(10회) = 10월 2일 작고
△심임섭(10회심성락) = 12월 4일 작고
△김간웅(13회) = 11월 25일 작고
△조상원(14회) = 10월 18일 작고
△마동명(15회) = 11월 13일 작고
△정덕한(19회) = 11월 12일 작고
△김정민(22회) = 11월 21일 작고
△박현태(23회) = 10월 28일 작고
△이영준(24회) = 10월 5일 작고
△이재봉(26회) = 11월 22일 작고
△한휘철(29회) = 11월 15일 작고
△김규혁(34회) = 11월 30일 작고

에서 결혼. △박창근 = 아들 11월 6일(토) 엘리에나호텔 3층 임페리얼홀에서 결혼. △윤정욱 = 빙부상. 10월 21일 부산시민장례식장에서 발인. △이병훈 = 빙모상. 11월 5일 부산성모병원 추모원에서 발인.

<33회>

△김태훈 = 모친상. 10월 10일 영남대학교 장례식장에서 발인. △김한호 = 딸 하운양 10월 16일(토) 오후 4시30분 우리들교회 판교채플 로비층 본당에서 결혼. △손학근 = 모친상. 10월 25일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지용국 = 아들 명근군 11월 14일(일) 오후 3시30분 센텀사이언스 별관4층 더 하우스홀에서 결혼. △황경원 = 모친상. 10월 26일 북울산 국화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34회>

△신춘식 = 딸 정윤양 10월 9일(토) 오후 1시 웨딩아레나 컨벤션홀 8층에서 결혼. △윤성부 = 딸 11월 14(일) 오후 2시 아이스퀘어호텔웨딩 그랜드볼룸 3층에서 결혼. △이성엽 = 딸 하림양 12월 5일(일) 오후 1시 그랜드블랑 7층 카로스홀에서 결혼.

<39회>

△김병기 = 딸 윤정양 11월 6일(토) 오후 1시30분 범일동 디엘웨딩 아모르홀에서 결혼. △이영수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6대 학회장(임기: 2022. 1. 1 ~ 2023. 12. 31)에 당선.

<44회>

△탁정환 = 빙모상. 10월 10일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박명섭(29회) 동문, 산문집 '생각의 바다...'퍼내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박명섭(29회·사진) 동문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산문집 '생각의 바다, 바다의 생각'(법문사)을 펴냈다. 지난 1983년 부산수산대에 초임된 이후 부경대, 성균관대 등에서 학생지도와 연구생활을 이어온 박 동문은 그동안 대학 신문, 경향의 여

러 신문과 잡지 등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사진). 바다의 사회과학적인 분야를 주로 연구해온 박 동문은 책 제목과 표지그림이 암시하듯 "마음은 늘 바다에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표지그림 제목은 '몽환의 광안리'이다. 박 동문에게 광안리 바다는 성장의 무대였던 '고향'이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해양수산 및 무역통상 분야, 그리고 일반 분야와 관련된 총 80여 편의 칼럼으로 구

려 신문과 잡지 등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이번에 한 권의 책으로 정리했다(사진).



성되어 있다. 박 동문은 "오래 전에 발표한 글도 있다. 읽다보면 '당시 그의 생각은 그랬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시대에 뒤떨어지는 내용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발표 당시의 현황과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회보구독료 납부자 명단

●〈총 2,418명〉 (2021. 11. 29 기준)

경남중고동창회보는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와 얼마 되지 않는
광고료 수입만으로 제작·우편발송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구독료(연 3만원)를 내주시면 회보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 큰 힘이 됩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 101-2074-0332-05

예금주 : 경남중고 총동창회 김대옥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선납부자 명단(회보구독료)

6회 최갑영 2022년
8회 장혁표 정금출 2022년
11회 김광석 2024년, 김옥실 김항곤 이재진 2022년, 이세영 2025년
13회 박흥표 2022년, 안성문 2029년, 이경재 2030년
15회 윤상준 임영길 2022년

16회 문성환 2022년, 민신웅 2023년
17회 전영부 2022년
18회 박기주 박석도 정재호 최재범 2022년, 홍우재 2024년
19회 이성달 2022년
22회 김일준 유명운 2022년
23회 박재호 2028년, 신언국 2022년
24회 구자웅 2023년
25회 김상수 김연석 김용범 이성웅 2022년,

임창운 2051년
26회 이상원 2030년
28회 안풍 임익성 2022년, 하재근 2028년
29회 김인술 이정운 2022년, 황유명 2023년
30회 강석철 2030년, 박정국 2022년, 박철우 2027년, 신교선 2025년
33회 최웅남 2030년
34회 이성엽 정하태 2022년
37회 서동욱 2024년, 이수환 전인수 2022년

38회 권두성 2029년, 정재형 2022년
40회 박훈재 2025년
46회 한영길 2022년
48회 김춘호 2023년
50회 박중현 2028년
51회 신혁휴 2025년, 신현식 2029년
53회 황종민 2023년
54회 엄도용 2024년, 이찬희 2022년
69회 정민기 2023년

3회(5명)
노관택 송두호 윤태윤 이안규 하덕모

4회(6명)
김희수 박흥기 양중학 장수호 정순모 정치근

5회(11명)
김병무 김재관 김진휴 박장후 상기중 오배식 이문기 임성업 정인조 진도영 홍관식

6회(14명)
강동숙 김중철 박웅진 배종권 변영수 손용수 오영은 유상환 이희문 임경택 경건웅 정덕환 정승화 최갑영

7회(16명)
강병희 김갑성 김삼현 김용우 김진홍 김태배 노상석 박환배 배중현 송외득 오장은 윤용우 임성극 임의택 조덕찬 하근수

8회(18명)
김봉길 김상식 김재범 문창화 박재범 박희옥 안중열 엄덕량 이종택 이준혁 이춘기 이호수 이희순 장혁표 정금출 조봉석 최재혁 홍광수

9회(14명)
김기관 김 청 박영복 서해량 신용익 안규현 유병철 윤일명 장동근 전인규 정 록 지삼봉 최성욱 한동대

10회(34명)
강희운 김기호 김상규 김선동 김성규 김정학 김평순 박경수 박재경 박철민 신규태 심영환 오강욱 윤부환 이계창 이근태 이상배 이승영 이승준 이윤수 이재준 이정호 임정우 장기상 전영대 정상수 정종만 조길수 조상진 조중제 진 강 최병도 최형백 하영수

11회(52명)
강병희 강용대 공상기 권병용 김광석 김병기 김성규 김옥실 김용만 김용정 김원형 김윤택 김인섭 김태호 김학수 김항곤 문정오 박관호 박창순 박희태 백근덕 서영호 서자운 손봉길 심재룡 심재홍 양수택 오정광 유홍중 유홍수 윤태원 이강우 이계찬 이규우 이상태 이상훈 이상길 이세영 이재진 이종백 이태순 장세원 장영권 정석철 정운표 제정오 지창호 천금준 천동조 최동영 최득호 최창욱

12회(61명)
강본순 강창수 구진웅 권시길 김기수 김기인 김동열 김봉하 김부생 김부환 김상열 김선일 김영보 김영수 김우성 김강욱 김중련 김중일 김지희 김훈호 문준화 박문기 박상도A 박영운 박용문 박준원 박호민 배기원 배병일 배종섭 변동만 서병기 손재준 심용치 안상직 안영배 엄태섭 오세경 윤학근 이규만 이상현 이수영 이승태 이영한 이용연 이원우 이현달 이희동 장동석 장일곤 정대식 정수복 정호중 조정제 조한기 조홍래 차민도 최경균 추영재 허은도 홍두표

13회(76명)
강종원 고송구 고시준 구문평 권영계 권영채 권영환 김동호 김무조 김상치 김신부 김일수

김정균 김정일 김종의 김치득 김한규 남영기 문 창 박길만 박안남 박영주 박일웅 박정웅 박종탁 박흥표 배대결 배정운 서시주 서영웅 성경호 송신의 신동배 신 명 신민철 안성문 윤기갑 윤조웅 윤태호 이경재 이근모 이범경 이병한 이상문 이용재 이종달 이준범 이창성 이창열 이창호 이철세 이태량 임소철 임영홍 장영길 정덕치 정로상 정영화 정은섭 정중현 제병민 조병성 조준탁 조철현 차영일 최상호 최성욱 최영완 최태환 추지석 한병조 한진희 허갑도 허 훈 황일인 황정대

14회(61명)
강주신 권 명 김덕행 김도선 김동화 김무남 김무웅 김익명 김재도 김창기 김 충 김태희 김형수 김학욱 노수덕 류충일 문운용 박남조 박만인 박병선 박순일 박중철 박철수 박창홍 배중현 백태우 송성달 신기석 신용진 신준호 신현호 유정호 윤영현 윤태규 이경우 이광언 이길미 이명재 이수남 이현영 이환균 이효근 이훈일 장상식 정용마 조광명 조규향 조기정 조정현 진성태 최낙섭 최병태 최봉현 최성웅 최충락 하문수 한규환 한수길 허 증 황원재 황준성

15회(61명)
강무상 강민조 강부부 강창일 권승부 김경일 김소현 김쌍열 김영훈 김옥규 김완식 김경길 김종태 김중한 김중광 김충식 김판열 남기주 남암순 박영무 박찬호 박효가 배 훈 백승진 서영진 손부홍 신용기 안경숙 오봉석 윤상준 윤우경 이상호 이수명 이의일 이정부 이종명 이종수 이종희 이태창 임영길 장봉고 장중호 정석우 조규중 조영일 최광웅 최무길 최병우 최 옥 최원수 최진도 최태치 하영수 하정부 한진출 한해수 허경도 허종덕 홍익찬 황건세 황중부

16회(69명)
강상권 강영주 강종국 강진중 공명규 권명석 권복술 김광수 김광용 김두웅 김박일 김상호 김영수 김일규 김형우 김정호 김 조 김중덕 김창희 김충길 김형석 문성준 민신웅 박기용 박두영 박용일 박중봉 방수근 배정희 변일수 서태복 설희순 성기식 성진호 손송방 송규정 송자문 안인환 엄종원 여성국 예광해 오형철 유영명 윤호주 이경환 이길홍 이무근 이방소 이성남 이양근 이영재 이종철 이철수 이창원 임승연 장사홍 정우광 정일성 정태성 조길우 조원제 주기민 지수신 채경일 최정일 하주열 하희진 한일랑 황규호

17회(55명)
감정은 권경술 김길우 김길호 김동수 김동조 김상천 김용구 김용남 김용정 김준연 김중성 김지창 김창운 남궁성은 박가식 박신도 박인사 박재구 박 찬 박홍식 서정승 손성근 송유근 송인문 송인창 신희규 심문섭 양성일 어운대 오충한 윤성욱 윤수성 이세복 이수원 이수창 이형우 임우택 임정수 장길성 장웅석 장호남 전경영 전대홍 전영부 정광우 정두호 정량부 정병렬 정용화 천용광 최성호 추봉실 하영수 허진형

18회(73명)
갈영수 강덕웅 강영호 강인섭 강정일 고병현 김경걸 김경권 김경화 김광웅 김귀언 김기섭 김만수 김사권 김성건 김재창 김중금 김중철 김지호 김홍대 류종우 문희억 박건태 박기주 박대웅 박덕봉 박동오 박민학 박상욱 박석도 박선동 박영복 박 용 박용주 박용혁 박중규 박중문 박준성 박호영 서부원 서재봉 서종규 설현기 손무열 손찬규 안창범 양동진 오수명 우원호 윤봉수 이금희 이영범 이충남 이형석 임채영 전기준 전병희 전영석 정구홍 정재호 조성재 최 인 최재범 최진수 하영일 한기대 한기철 허도형 허만조 허성태 허영태 홍우재 황광근

19회(89명)
강동완 강영범 강재욱 강경우 강경재 김규하 김덕규 김덕수 김명수 김배호 김봉호 김석윤 김성진 김영우 김영탁 김영태 김윤기 김인선 김일천 김재근 김경우 김중기 김중우 김진국 김진호 김찬균 김철호 김행복 노덕현 노태규 박동화 박상식 박상택 박성철 배무삼 서승성 선우일남 성낙출 성환진 손기태 손말현 손철수 신동인 신윤철 심영섭 심재구 안정모 오태수 유문환 윤수상 윤영규 이근식 이영환 이병구 이상만 이상우 이상달 이양환 이용조 이용홍 이창희 이종명 이창도 이창돈 이창윤 이창흠 이춘만 임우근 임채원 장성규 장홍의 전영석 정규병 정승수 정용식 정원찬 정태을 조성환 조재운 진수상 최병수 최상대 최학익 한명섭 함진복 허남걸 허홍욱 황태경 황태원

20회(58명)
강부덕 강석근 강두영 강성룡 강성환 김세준 김병철 김우홍 김원갑 김일석 김조동 김종민 김찬만 김철영 김한원 김형오 남경열 남기석 목일진 문성채 문시영 민영기 박용덕 박 준 박지오 배준태 백완균 백창열 손춘수 신원기 심두수 안재상 양태운 오기현 유근준 윤병규 윤우성 이수호 이실근 이영오 이종열 임세호 장상배 장춘식 전일준 정규식 정세현 정승창 조영철 조운태 차용환 최명호 최상인 최석립 최창하 최경경 허남균 허주한

21회(88명)
강민우 강수경 강순석 강영도 강욱형 강원태 강창수 강태순 공기화 구본능 구현수 김기현 김남규 김대웅 김동우 김병수 김부근 김상덕 김명삼 김유근 김익수 김조영 김현태 김형동 김홍근 김황세 마상준 박명문 박명욱 박인협 박일송 박자민 박재선 박주용 배영일 배 일 변창섭 서덕수 서병문 성경근 신태윤 안상갑 안승원 안채식 양병주 여환부 오거돈 오익희 오태규 우성근 우종득 육화원 윤승근 이명환 이문수 이성집 이익규 이재택 이재호 이준성 이 혁 임경범 임성출 장경표 전기환 전우성 정상인 정연호 정태영 조상호 조성근 조화래 조현국 조호제 진영천 차동민 최동완 최민석 최원준 최점수 최정림 최종린 탁원령 하영준 한대운 허영도 허창수 황영실

22회(76명)
강상대 강호일 고인준 곽대홍 금명환 김광국 김도살 김동욱 김동원 김명수 김성재 김성태 김세곤 김승규 김원주 김일봉 김일준 김정곤

김정민 김진철 김학균 김해현 남백우 노평호 박규묘 박승목 박언표 박재구 박재상 박홍조 배병한 배춘식 백봉주 변대석 변중호 부창전 서경덕 손연모 손용섭 송승훈 심재복 안영수 오세길 유명운 유인조 유재락 유재진 윤동원 이민성 이웅규 이운제 이춘식 장무성 장성덕 장성복 장영근 정근화 정남식 정진식 정해진 조장현 조홍기 최광욱 최성열 최영택 최학봉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형우 허범도 허승조 허인석 황영환

23회(78명)
갑인홍 고용석 구영수 구자섭 김건일 김기열 김동욱 김상영 김상태 김석현 김영기 김영철 김익근 김정록 김주찬 김중광 김태용 김태홍 도명세 박기홍 박수갑 박영호 박재호 박중환 배중순 배준석 백승찬 백창영 서승환 손근식 송영춘 송재섭 송충순 신경재 신동규 신언국 안범두 안병울 오도준 원인근 유석산 유원형 유진무 윤길원 윤만수 윤병조 윤태규 이강우 이기호 이대우 이덕남 이동성 이병찬 이부식 이상수 이수백 이승호 이영재 이영훈 이윤석 이일원 이정욱 이충호 장기원 장백기 전명식 전상대 전영조 전재홍 정귀출 정동일 정상건 정용호 채해운 최영목 최인식 하복진 한명경

24회(89명)
강동우 강창흠 곽두희 구본열 구자웅 권수찬 권해영 김경남 김경호 김도인 김도현 김동운 김만복 김명배 김무성 김봉용 김성권 김승탁 김영만 김영민 김영철 김유신 김윤수 김은호 김인구 김정신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남진현 남창영 노상우 문휘영 박근제 박윤성 박천호 박홍규 배종갑 변용준 서정대 서정득 손성호 손인수 신장우 안상수 안형수 여철우 원동희 윤석만 윤재인 이대영 이동진 이명복 이상우 이 수 이영태 이재능 임덕철 임민호 임성근 장민재 장세호 장원서 장현동 전대현 전용우 정광윤 정명근 정영석 정영환 정용호 조영태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조현찬 주승환 주점권 진병건 차동열 최동우 최원주 최현규 태창업 하 옥 하재갑 한상열 허구연 황성훈

25회(131명)
강수명 고명식 구도근 구자훈 권태용 김건우 김광돈 김길수 김대현 김덕우 김동진 김문국 김상겸 김상수 김상필 김수국 김수석 김연석 김명수 김영호 김옥권 김옥철 김용경 김용범 김우형 김유환 김익수 김정학 김종국 김중윤 김중현 김진우 김진철 김창욱 김창호 노태호 문재인 박근수 박경립 박광용 박동근 박맹우 박세철 박원규 박영림 박종기 박종찬 박진국 박진상 박홍기 배기동 배대관 백영건 서민상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규 서정욱 석창재 성경출 손기천 송동준 송세경 송영근 송영기 신경학 신성기 신성찬 안수영 안영복 안희석 양승욱 양시욱 예종복 오양득 옥동훈 우진태 유용기 윤순기 윤태석 이계성 이근만 이대우 이동익 이명철 이상봉 이상화 이성웅 이승욱 이신화 이우석 이인구 이창훈 이태근 이태식 이학준 이홍성 임영대 임창훈 장세준 전섭태 전영훈 정길영 정신배 정재봉 정철수 제영성 조경일 조대우 조병욱 조 익 조판제 좌상봉 주재걸 차인환 최경호 최병주 최재환 최차호 최차환 최태동 탁준길 태명산 한석정 한준석

한한교 허만탁 허영형 허 택 황곤태

26회(86명)

강수남 강영녕 강익규 고석훈 구영호 김광식
김기표 김두천 김민철 김상현 김영섭 김일광
김재용 김정곤 김정무 김정원 김중우 김채영
김태년 김택영 김 형 김호용 민창현 박경수
박경재 박근석 박동조 박상호 박오욱 박원상
박원세 박의영 박장현 박재우 박재욱 박효대
백문현 서헌수 성백은 성재업 성재일 손영수
손욱호 신동춘 심덕수 심승택 왕정일 왕효석
윤승용 이경호 이광태 이명진 이상원 이성근
이순철 이양춘 이영학 이우상 이재봉 이정곤
이주형 이창식 이희준 임철호 장경재 장만옥
정영륜 정익교 정재영 정태현 정현준 조만석
조일제 지용섭 최명해 최성락 최성수 최수일
최의수 하성봉 하원규 허진호 홍순하 홍청곤
홍형택 황광수

27회(58명)

강태영 고창우 곽태홍 김강호 김광철 김근우
김명기 김병욱 김병철 김병호 김상문 김안석
김영삼 김우진 김중욱 김지언 김진명 김학회
김호균 문두찬 문성기 박규욱 박춘규 박치호
반정열 배병록 배효택 변재국 서기룡 신한원
양태중 오봉인 윤석건 윤정환 윤종락 이민부
이성득 이요섭 이원호 이종경 이종찬 이천식
이현 장인철 장창조 전 풍 정남근 정두식
정재호 조봉관 조용수 천우태 최인성 최휴진
태기섭 하창우 한상훈 한수길

28회(76명)

구영소 권기택 김관세 김대생 김만중 김명철
김상윤 김선경 김용석 김용섭 김익성 김인준
김준연 김창준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문성룡 민교식 박병준 박성권 박영규 박윤철
박국기 박진화 배호진 백무현 백영호 서기희
서정환 신중현 안재홍 안 풍 양동욱 엄보용
엄재홍 엄호성 오효석 옥상근 유봉수 윤경섭
윤명일 이관선 이만수 이민우 이양훈 이원철
이종대 이종만 이종환 이홍오 임상규 임익성
임재덕 전선국 전진하 정두현 정백수 정영주A
정인식 정치영 정해영 조석태 주창석 최강호
최광해 최연삼 최연욱 하재근 한기웅 한명재
한복석 허남식 허영철 황장두

29회(80명)

강대용 강성훈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A
김기원 김대영 김대욱 김병희 김부겸 김부근
김석운 김 영 김영훈 김용채 김인술 김재현
김정규 김정암 김중권 김중명 김철오 문창건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흙 박영섭 박봉구
박상길 박성근 박인평 박창언 박희규 백성욱
변종만 사경운 서석철 서영학 설동일 손영보
손태권 송경문 신현수 안철홍 양승룡 오세용
윤석희 윤 옥 이남중 이문열 이범익 이병건
이상용 이승호 이승훈 이정운 이준한 이진욱
임광열 장현경 장전화 정 길 정성훈 조승제
조진수 조창열 차의수 최기훈 최문성 최영식
최정만 추연철 하현태 한만수 현계성 현응열
황맹곤 황유명

30회(84명)

강석철 권용택 김경수 김기섭 김기수 김기업
김백수 김병기 김상직 김성복 김승대 김영일
김옥성 김유기 김재일 김진영 김치영 김해곤
김현태 남영효 노동춘 도문성 문장호 박규완
박원호 박재백 박정국 박정태 박중배 박철우
박희관 변운수 서강태 서민석 서하수 석희원
신교선 신구균 신유원 신인기 양문섭 오경태
옥유전 유재일 윤인태 윤종순 은현수 이명건
이병구 이성기 이성조 이수성 이용우 이원용
이종욱 이철호 이태봉 이한수 이호걸 이호준
이환기 인준승 장봉규 장석일 장선동 장호영
장훈상 정경목 정기룡 정성원 정순길 정승진
정영호 정재화 정태환 정해석 채영재 최영규
최우철 최 욱 최진곤 최진권 하규양 황철민

31회(73명)

공종렬 권해철 김기정 김시현 김영철 김정덕
김종규 김중호A 김형수 김호연 남기태 남철우
노성현 류명석 문성일 민중현 박경수 박석두
박인정 박중호 박춘열 박해성 박희암 배인환
서규영 서동균 서수교 서태고 손영태 손은정
손진기 신상하 신수열 신용필 심중식 안기수
안용모 안중수 오민일 오용환 오호철 옥치호
윤석중 이민재 이병태 이승원 강건호 장재훈
장정철 정무석 정용식 정용정 정원규 조성근
조영기 조현우 차인용 천창호 최봉근 최부영
최상용 최인목 최재호 최주홍 최진섭 최해영
최효식 하명수 하병관 하학렬 한문성 홍 구
홍성수

32회(37명)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종판 김창범 류현희
민길식 박상학 박성철 박우상 박원근 박종구
박진원 배종찬 변문성 송기수 신국선 신한국
양문성 오경문 우득현 윤병조 이병훈 이상용
이성훈 이재수 이종희 임인섭 임재균 장기호
장영택 정영철 정용운 정의주 최춘호 최호영
현대명

33회(54명)

고창성 공진환 김기산 김대현 김령환 김범영
김원일 김운성 김재도 김재선 김종만 김종인
김태훈 김 혁 남경태 노경호 류장근 박근보
박명진 박상국 박성병 박창완 박태중 배성수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성림 송중현 신동천
안동문 안영훈 안찬모 예영찬 오항선 이동근
이석희 이윤조 이은우 이진우 이창훈 이형근
장정석 정아준 정영호 조덕환 조영학 주기훈
지창근 최영두 최웅남 최환호 황경원 황영복

34회(30명)

강승기곽수근 김두섭 김범석 김상갑 김태하
김하봉 김희영 노인선 박철욱 옥재명 윤성부
이강희 이상운 이성영 이용희 이정철 이준권
이진호 장현기 정노혁 정하태 조문국 조 선
조시형 진양호 최대한 최웅철 홍승철 황병주

35회(35명)

김관우 김기철 김길호 김동일 김우경 김우신
김홍곤 나동욱 도창호 류인수 류철인 박동렬
박창석 박창제 서석권 성규원 손기철 손수범

손태섭 송화철 안중엽 안중일 오시영 윤종호
이남기 이복근 이성환 이원우 이종찬 이춘기
임주택 장인화 정효영 주귀홍 최기평

36회(58명)

공진식 권일복 김관용 김규선 김길호 김덕주
김병국 김병주 김영훈 김용진A 김용진B 김재호
김정현 김종백 김중오 김종일 김창일 김철원
김한교 남우진 박승근 박영준 박영찬 박진용
박철중 박형출 방정영 백태민 서광원 성귀호
신용덕 안재익 양성용 양호진 윤경준 이동희
이상권 이상준 이성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 창 이학수 이한호 임서룡 임창섭 임창의
정갑영 정병기 정윤희 정홍원 지동섭 차대일
최상도 최재혁 최태섭 한형식

37회(34명)

김기동 김상현 김성현 김영곤 김원빈 김의렬
김종휘 김준오 김형기 노태건 문진형 문희영
박용진 서동욱 소수현 송경철 유호섭 윤태환
이수환 이호진 장원의 전인수 정기섭 정재호
조상현 조성각 조현철 차기완 천웅찬 탁낙준
하태민 허부남 홍병일 황대윤

38회(41명)

강금성 광동열 권두성 김경곤 김경태 김대훈
김문철 김상수 김원철 김태호 김현민 류인식
문익현 박이현 박정민 박준표 박준근 박태봉
방기대 백두만 신동훈 심재영 심 춘 안길수
오승언 오희진 윤경만 이수관 이종일 이창호
이태훈 정인철 정재형 조석태 조용철 주영록
차성철 차정호 천병두 최휴경 한민득

39회(48명)

김대중 김병기 김영부 김윤홍 김종엽 김현진
김호석 노성수 문기호 박근대 박상환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박진열 박해동 백기현 서은식
송영호 심왕섭 안승진 안영준 여동섭 유숙경
유인기 윤동배 윤원욱 이가용 이상학 이상태
이승기 이영수 이종욱 이종운 이철원 이태윤
장동수 장윤희 정순환 정영설 정용국 정우영
정진해 천용준 최보식 하성포 하순호 허종기

40회(38명)

강창지 고승성 권병서 김근영 김용철 김종철
김창민 김춘강 김학수 나수민 노인철 문태영
박근성 박무성 박재현 박훈재 배병훈 배진수
서정민 손균효 심 철 안경진 안성호 옥진형
우영환 윤경학 이강욱 이 기 이병완 이상백
이정삼 이태욱 임태영 장갑구 장명재 최치언
한수열 황성수

41회(38명)

강병오 강석희 강 훈 김범성 김봉준 김신욱
김영철 김인수A 김정태 김형률 류지섭 박동규
박상환 박정기 박정의 박정호 박진형 백선민
백창봉 서백중 성중훈 성찬기 안광근 양성욱
윤광희 이경호 이광희 이양걸 이종우 임병호
장윤희 전삼록 조재봉 최영준 한정호 한창희
허준윤 황정후

42회(17명)

강인호 고장석 권영태 김광철 김동수 김재용
김태구 김현오 남화정 문지성 박동식 신동복
신봉준 정용중 정홍준 제정환 조명준

43회(29명)

강병규 구명진 김남수 김대영 김대훈 김동현
김신현 김영휘 김중식 김진규 김진수 김태형
김희경 문영찬 박경곤 박영학 박형규 송대성
윤성진 이상현 이용상 이진배 이학노 장병철
정호범 최동환 최용석 최하림 허재원

44회(31명)

권상근 김동욱 김성준 김성훈 김찬홍 김해근
김형모 김 황 문형준 배봉건 서영민 심재홍
안병규 안성만 우도균 윤상훈 윤철홍 이동렬
이승철 이창용 임정훈 임지훈 전광렬 정의석

정희정 조영호 조진현 조청현 탁정환 한수성
황인주

45회(48명)

강동호 구자삼 구태욱 권우일 김경수 김동규
김동욱 김병한 김병한 김상수 김성준 김종현
김진수 김찬수 김찬호 김창균 김태규 김현철
김현호 박중호 박진수 박진영 박진환 박훈식
손창오 신상호 양현욱 오문찬 윤한균 이광석
이규진 이동희 이상현 이정일 정상희 정일균
정중훈 정택덕 조청래 조태성 주형기 진상영
최상배 최재근 최재영 최지우 하인수 황귀웅

46회(36명)

강남구 구경민 권성기 권진근 김규태 김대기
김동욱 김동희 김백권 김부규 김승완 김태영
김태준 김희택 문용성 문정기 배동석 백경택
서승진 서용택 신정일 안명기 오영훈 윤경환
윤성곤 이동수 이성민 이재광 이태환 장윤성
최원석 하성근 하성용 한영길 홍이준 황상철

47회(16명)

감기환 강백중 고달우 김동휘 김재성 배준수
성상용 손호준 오성진 이기문 이승택 장순재
정민호 정 신 정윤호 차기혁

48회(8명)

권태현 김정훈 김주현 김춘호 김충진 김태균
이동재 차원일

49회(7명)

김성구 안형수 이충현 장민건 정준용 조영철
최진영

50회(7명)

구경모 김유진 박종현 서석진 윤종선 장태효
최종빈

51회(23명)

감중현 강승호 구대서 구민석 김기호 김동주
김영권 김영태 박보순 박성주 반길호 서성호
손익선 신석진 신혁후 신현식 이견영 이 덕
이지모 정유석 정진우 최우영 최환석

52회(32명)

강영철 강재식 구순모 김명종 김민수 김민철
김상곤 김성화 김용권 김지운 김현진 김형준
문성환 박상현 박선중 박정규 변의현 변정환
심종배 양현승 유종갑 이경원 이도경 이세벽
이해곤 정길수 정상중 정현철 최형주 한중현
허근영 허홍만

53회(16명)

강덕천 곽상훈 김경찬 김광호 김권우 김상욱
문희규 박정진 송승윤 안영재 우재준 이원준
이진수 전세일 한동인 황종민

54회(19명)

강치범 고강인 고지현 김승택 김영빈 남준현
박신우 석강훈 손희원 엄도용 이동준 이재진
이재필 이찬희 장성민 정준섭 제재철 조종완
한병제

55회(8명)

권세호 박기홍 이욱한 이종원 이항림 장지훈
최범준 최성원

56회(1명) 손정현

58회(2명) 김현윤 정 혁

60회(1명) 이명휘

65회(1명) 이정조

66회(3명) 김덕형 김시준 성범석

67회(2명) 전명재 황유광

69회(1명) 정민기

78회(1명) 홍경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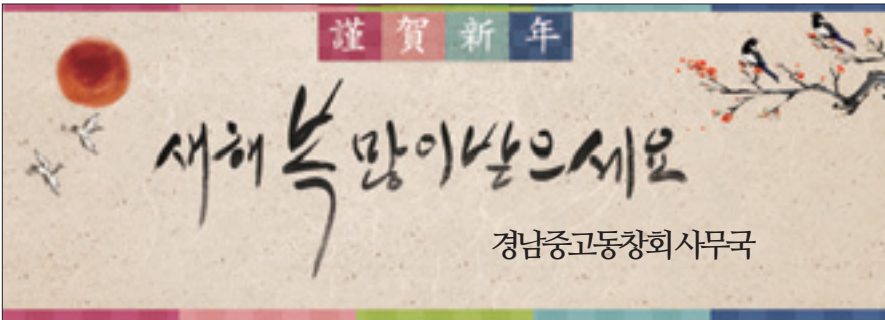
79회(1명) 김민규

기수 & 이름 확인불명 3명

2021년 구독료 납부현황

2021년 11월 29일 현재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기수	발송부수	납부인원	납부율(%)
1	0	0	0%	20	68	58	85%	39	66	48	73%
2	0	0	0%	21	105	88	84%	40	97	38	39%
3	6	5	83%	22	98	76	78%	41	78	38	49%
4	7	6	86%	23	94	78	83%	42	50	17	34%
5	11	11	100%	24	115	89	77%	43	75	29	39%
6	20	14	70%	25	197	131	66%	44	63	31	49%
7	21	16	76%	26	108	86	80%	45	56	48	86%
8	25	18	72%	27	83	58	70%	46	46	36	78%
9	24	14	58%	28	90	76	84%	47	40	16	40%
10	42	34	81%	29	117	80	68%	48	13	8	62%
11	63	52	83%	30	115	84	73%	49	49	7	14%
12	77	61	79%	31	89	73	82%	50	70	7	10%
13	91	76	84%	32	46	37	80%	51	113	23	20%
14	68	61	90%	33	62	54	87%	52	141	32	23%
15	77	61	79%	34	37	30	81%	53	43	16	37%
16	86	69	80%	35	56	35	63%	54	91	19	21%
17	64	55	86%	36	65	58	89%	55	12	8	67%
18	91	73	80%	37	41	34	83%	56	10	1	10%
19	105	89	85%	38	45	41	91%	57이후	32	12	38%
Sub-total(1)	715 명	Sub-total(2)	1,266 명	Sub-total(3)	434 명						
미상	3 명	목표인원	4,000 명	구독료납부인원	2,418 명						
총발송부수	3,654 명										



Since 1959



White Horse



Baek Ma

세계 50개국에 수출하는
목공·원예공구

No.1



태 흥 이 기 공 업 사
TAE HEUNG LEE KI IND. CO.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농공길 2-57(예림리) TEL : (051) 523-8496 FAX : (051) 526-0381
E-mail : thbaekma@naver.com http://www.thbaekma.com

대표 우 영 환 (40회)